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金溶澤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社說

物價暴騰에 對하야
適切且確乎한 措置를 講하라

一

支那事變勃發以來 產業機構의 戰時體制化, 軍事費의 增大, 物品不足과 需給不圓滑等의 諸般事情으로 物價는 昂騰의 一路를 辿하야 바야흐로 一般消費大衆은 一大自衛를 要할 重大時局에 直面하게되엿다。이제 日銀調査에 依하면 二月의 都賣物價指數는 二四九、三○으로 前月에 比하야 一分六厘 前年同月에 比하야 八分二厘의 騰貴를 示하엿다。그리고 總督府調査에 依하면 昨年十一月中 京城外八個府의 小賣物價는 調査品目 九十四種中騰貴한것이 三十七品 低落한것이 八品 保勢가 四十九品으로 이를平均하여보면 前月보다 二、七의騰貴를 示하엿다。또 이것을 品種別로보면 穀類는 前月에比하야 ○、二의下落을 示하엿고 肉類는 ○、二 飲料及調味料는○、四 蔬菜及果實類는 九、六 海產物은二、二 衣料類는一、六 燃料는一、三 雜品은 二、一의騰貴를 示하엿다。이에 四月一日부터 實施한 臨時增稅로 因한 騰貴까지 加算한다고하면 그 騰率이 어떠하리라는것은 明若觀火한 일이오 特히 그大部分이 日常生活에 必要한品目인것이 一層吾人의 注目을 惹起하는바이다。

二

最近의 物價昂騰은 時局의推移上 人爲로써 抑制하기 困難한 諸般要素를 孕胎하고잇는것은 否定할수업는 事實이다。緊急必須品의 輸入을 爲한 一般的輸入制限、多額의 軍事費支出에依한 軍需品生產의擴充과 이에伴하는 一般生活品의 供給不足과가튼 物資需給方面에서오는 壓迫、軍事費豫算膨大에 伴하는 公債增發과 生產力擴充에伴하는 通貨膨脹方面에서오는 壓迫等 이러한 種類의 壓迫은 人力으로써 左右할수업는 必然性을 갓고 物價에 影響을及하게된다。그러나 最近의 物價騰貴는 어러한 原因만이 作用하는것이아니다。이點은 都賣物價의 昂騰率에 比較할수업스리만치 小賣物價의 騰勢가 高率인것을 보아도 알수잇다。生產으로부터消費까지의 配給組織內에 存在한 缺陷, 配給業者의 思惑然과 不當利得、一般消費者의 買急傾向等은 小賣價格을 自然的水準以上으로 引上하게도된다。이밖게 增稅라는것도 生產業者와 配給業者가 自己等의 負擔增加를消費者에게 轉嫁식힘에 必要한程度以上으로 物價를 引上식혀 도리혀 增稅를 口實사마 不當利得을 貪하는 傾向도 全然업는바는아니다。

三

如斯한情勢下에 一般小賣物價는 昨年中에 이미 一割이騰貴하엿고 今年에드러서도 急騰의趨勢를 示現하고잇는것은 日常經驗하는바이로되 賃銀方面에잇서서는 昨年中에 五分밧게 오르지안한것으로보아 時局의影響에 갈리어 特殊以外의 收益을엇는 小數를 除外하고 大多數國民은 物價高와 收入高의跛行的變化에 시달리고 잇는것이事實이다。이러한 難局에處한國民으로 國民生活을 衝調잇게하야 收支의 均衡을 企圖함이 國民의當然한 要求이로되 當局으로서도 物價高에對한 適切한對策이 하로바삐 實施되어야 할것이다。政府는 支那事變勃發直後 今日의事態가 挑起될것을豫想하고 暴利取締令을 發布하는 一方 公定價格制를 實施하야 物價를 統制하여왓다。그러나 政府의 物價統制策은 業者의 策謀를 效果잇게 防止치 못하엿다는것은 商相自身도 議會에서 言明한바이다。當局은 今後의 物價對策으로 暴利取締令을 一層强化하야 特定商品에 對하여는 價格及販賣條件을 統制하는 一方 物價委員會를 設하야 公定價格의 決定、配給組織의 是正 代用品의 獎勵等 物資需給政策等을 考究한다고 議會에서 聲明하엿다。當局의 어느 政策이 하로바삐 具體化하야 生產으로부터 配給까지의 全過程에 亘하야 物資需給의 圓滑을 期하는 適切且確乎한 對策이 되여 國民의 重壓을 輕減케하기를 要望하는바이다。

承通線開通

【北京一日發同盟】昨九月以來中斷되어 修理中이든 承德을連結하는 熱河線은 最近完成되여 四月一日을 期하야 營業을 開始하엿다 同線은 通州 承德間二百二十七粁에 亘하는 重要한 鐵路로 沿線의 經濟는 자못크게 될러인바 當分間 每日旅客一列車를 運行할터이다 그리고 沿線에는 熱河로만흔名勝으로 多數의 觀光客이 利用하게되리라고 期待된다

退陣說은解消되고 現內閣强化論有力
新黨運動裏面에는不純한動機潜在
當分形勢觀望키로決意

【東京電話同盟】事變下第二期長期戰의 段階에 入하는同時에 近衛內閣의 使命은 事變第一期工作의 完了를따라 終了하얏다하고 去第七十三議會에서 軍事豫算과 增稅를 비롯하야 電力國家管理法案, 國家總動員法案等 諸法律案의 成立을 보앗스므로 此等을公布施行을 기다려 退陣함이 가장 妥當하다는 意見이 議會中부터 政界와 一部에 擡頭되고잇섯든바 議會가 終了되매따라 目下의 情勢에잇서서 近衛內閣의 退陣함은 부질업시 政界를 混迷에 陷케하고 事變關係增稅等이 將次 實施되려는 今日 社會情勢를 不安케하는以外에 아무것도 아니라는理由로 近衛內閣退陣說은 漸次 沒影하고 그代身 現內閣强化에 依하야 오히려 時局에 積極的으로 進出하야 革新諸政策을 노리걸고 第二次段階를 完全히 打開할것이라는 積極意見이 有力化하게되엿다 그리고 此强硬意見은 現下內外의 情勢로볼때 가장 理論的이라고 보이고 또現實的의것인바 漸次 支配的地步를 占하게되어 政黨方面의 一部에 아직 殘存하야잇는 現內閣退陣論以外의 分野에 勢力을 占하게되엿는바 閣內에잇서서도 그意見에 加擔하는 有力閣僚는 有馬農相、末次內相等 純理派로보이어 表面的으로는 相當히 實現性이잇는듯한 相貌를 呈하게되엿다 그러나 右意見은 具體的으로는 內閣改造에依한 政府의 補强工作에 落着할므로 目下 木戶文相의 兼任으로되어잇는 厚生大臣의 補充과 同時에 政黨出身閣僚에 까지를 부치어 此方面으로부터 爲先閣內强化의 第一步를 進하려하고잇스므로 近衛首相을 爲하야서는 何時나 自進하야 犧牲이되려하는 有馬農相을 辭任케하야 內閣改造의 機會를지어 政民兩黨方面으로부터 所謂新黨運動 或은 合同運動에 有力한 役割을 하려하고잇는 巨物을 入閣시키고 그에依하야 閣內改造와 新黨工作의 一石二鳥의 效果를 거두려는것이 그本心이라고 보이는데 벌서 이情勢를 看破한 政黨方面의 巨物中에는 스스로 新黨의 中心이되려하야 이를 선물로 入閣交涉을 待機하려는 野望이 보이어 政友會方面의 新黨運動이 活潑化하게된 現象과 如한것도 그裏面에 多分히 이러한 不純한 動機가 竄伏된다 따라 純理派의 有馬農相、末次內相과 如한이는 벌서 政界의 不變하는 現狀에 憤慨을 가지고 近衛首相도 어떠한 人爲的策運에 依함을 不肯하므로 最初 가장 有望視되든 內閣强化에依한 時局突破의 方法도 玆에 當分形勢觀望의 形態로되엇스므로 政府는 厚生大臣의 專任決定으로 議會後의 工作一段落으로하고 內外情勢에 對應하려고 政局問題는 모두 今後의 情勢를 기다려 徐徐히 處理하려고 暫時政局靜觀의 姿勢에 도라가게되엿다(寫眞은 近衛首相)

漢口飛行場敵의防空陣

傷痍軍人保護策 傷兵保護院創設

【東京電話同盟】政府는 傷痍軍人의 保護對策으로 厚生省의外局傷兵保護院을 創設하기로 되여 지난 第七十三議會에서 豫算의 協贊을 經由하엿슴으로 其施行에 伴하는 官制案의 立案을 急히 하고 잇는데 大體로 二日 閣議에 附議하엿다가 樞密院에 諮詢되엿다 그리고 政府는 官制公布를 기다려 總裁以下를 專任하고 늦어도 今月 下旬이나 五月初에 事務를 開始할 豫定으로 되어 잇는데 總裁에는 陸軍大將級의 人物을 推擧할 方針인바 其候補로 本庄繁、阿部信行、松井石根 各大將等이 有力시되여잇다

戰時豫算施行과 大藏省訓令內容
可及的諸般需要를節約하고 諸經費의效能을發揮케하라

【東京電話同盟】十三年度豫算은 一般會計에잇서서 二十五億一千四百五十一萬九千圓 臨時軍事費特別會計追加豫算에잇서서 四十八億五千萬圓의 巨額에 達하고 그財源으로서의 公債發行額도 一般特別兩會計를 通하야 五十億二千八百五十萬二千圓의 膨大한 額에 達하므로 政府는 그經濟界及國民生活에 及하는 影響을 考慮하야 그施行에 對하야서는 萬遺憾업는 對策을 講究하려고 準備를 進行하고잇든데 十三年度開始日인 四月一日의 閣議席上 賀屋藏相도 右에 關하야 所信을 披瀝하야 各閣僚의 諒解를 求하얏는바 各閣僚 異議업시 承認하얏스므로 近近 大藏省에서 草案을 起草한우에 各省에 對하야 訓令을 發하기로 決定되어잇다 右訓令의 要旨는 如左하다

十三年度豫算은 事變長期化에 鑑하야 緊急을 要하는 對策에 必要한 諸經費를 計上한것으로 모두 時局에 鑑하야 緊急不可缺한 豫算인 그金額이 巨大한點으로 보거나 公債發行額에 對하야 보드라도 그國民經濟에 及하는 影響에 對하야서는 元來我國의 國情으로보아 二百億 三百億의 經費라 할지라도 何等 두려워할것이 아니나 事變이 長期에 入하는以上 될수록各方面의 負擔을 적게할 必要가 잇서 公債의 消化 物價騰貴의 對策 爲替水準의 維持等에 對하야서는 될수잇는대로 慮해야 할것이다。따라서 豫算施行에 當하야서는 今後의 推移에 應하야 當面 그支出中 緊急치안흔 經費가잇는境遇는 그緩急을 가리어 될수록 그需要를 節約하는同時에 各經費의 能率을 發揮케 一層의 硏究를 하야 刻下財政全般의 運營에 愼重한 用意가잇기를 바란다(寫眞은 賀屋藏相)

首相西下歸途 園公訪問

【東京電話同盟】近衛首相은 來六日 京都에서 擧行될 孝明天皇 御七十年祭에 參列하기爲하야 同日 午後一時 東京驛發 特急으로 西下할 豫定인데 其歸途 興津 坐漁莊에 西園寺公을 訪問하고 意見을 交換할터이라고하는바 首相의 園公訪問은 昨年 八月 御殿場以來의 일이다 그리고 首相의 此園公訪問은 支那事變以來의 經過와 懸案問題等 支那事變對策 方針에 關하야 說明하고 奏薦에 對한 意見을 聽取할것으로 보이는바 今回의 會見에서는 以來의 經過와 大本營의 設置 一月初 重大聲明을 發하게된 事情 그리고 長期戰 第二段階에入한 現狀을 詳細說明하고 더욱 北支에 잇서 新政權樹立에 伴하는 政治的 經濟的 動向及 重要政策 運用에 關한 政府의 方針을 述하고 其決意를 披瀝하는 同時에 第七十三

英大使香港着 數日中漢口向發

【香港一日發同盟】英國大使 카氏는 一日午前七時入港한 P·O汽船으로 香港에 到着하엿는데 總督 노스코트氏及 英國支那艦隊司令官 노블少將과 會見하고 上海情勢及北支、中支政權樹立에 伴하는 支那問題에 對하야 意見을 交換한 後 同十一時半에 出帆하야 漢口에 向하기로 되엿는데 一日夜或은 二日午前 英國軍艦으로 廣東에 赴하야 廣東에서 飛行機로 四日午前 漢口에 到着 林森主席에게 國書를 捧呈하고 二十日頃 香港에 歸還할 豫定이다 그리고 大使는 漢口에 滯在中인 蔣介石以下國民政府首腦部及 目下漢口滯在中의 蘇聯、米國도 各大使와도 會談하리라고 觀測되는데 同大使의 在漢中의 行動은 非常히 注目된다

台兒莊占領目睫間

【北京一日發同盟】台兒莊東北과 西北의兩角을 占據하고 또 戰果를 擴張中이든 ○○部隊는 三十一日夕刻드되어 台兒莊의 四分의三을 奪取하고 더욱 殘敵을猛攻中으로 同城의 完全占領은 目睫之間으로되엿다

海軍航空空襲部隊 南支各軍事機關爆破

【上海一日發同盟】海軍航空隊는 春陽明麗한 三十一日 廣東方面上空을 縱橫無盡으로 飛翔하야 英德南方의 粵漢鐵道鐵橋等을 爆破하고 다시 琶江口에서 兵工廠新建築物二棟을 爆破하고 繼續하야 新造及白泥塘의 軍需品工場을 爆破하야 其數棟을 燃燒식히엿는데 火焰은 冲天하엿다

徐州의大殲滅戰迫到

【濟南一日發同盟】徐州防衛의最後的陣地 台兒莊은 我軍의猛攻으로 이미其城內의四分之三까지는 我軍의손에 歸하고 其陷落도 目前에迫到하엿다 이것이 陷落되면 徐州는 直接我軍의猛砲火를 當케되엿다 蔣介石은 台兒莊保持에 必死的으로되여 廿七日以來 湯恩伯及 張自忠軍의 七八個師로써 我台兒莊總攻擊部隊의背後를 衝擊하기爲하야 台兒莊東北方三、四里에 肉迫하엿스나 卅一日 我○○及○○部隊는 巧妙한作戰으로써 이를南北에서 挾擊하야 猛擊을퍼부어 壯烈한 殲滅戰을 展開한바 敵의大軍은 不意의攻擊에 唐慌하야 東方及 東南方으로 敗走하고잇다 我軍은 아직도 陸呼應하야 이에猛擊을集中 敵은大混亂에陷하여잇다 그리고 台兒莊西方으로 敗走中인 敵을追擊하는 ○○部隊는 卅一日午後 台兒莊西方八粁의大運河河畔 泥口、屯莊을占領 敵은 多數의死體를遺棄하고 西方及 西南方으로 潰走하엿다

列國建艦策에備해 海軍當局愼重對處
關係各國態度를注視

【東京電話同盟】外務當局은 三十一日 英佛兩國政府에 對하야 第二次倫敦條約의 에스카레이터條項援用에關한 通牒을 發하야 主力艦三萬五千噸 十六吋制限撤廢에 關한正式意思를 通告하고 文은今一日公布될터인데 이에 華盛頓海軍會議以來主力艦에 加한 一切의制限은 華盛頓會議의 招請國인 米國政府의 發言에依하야 名實共히 放棄된다는 極히 우수운運命에 逢着하엿다 米國政府의 通牒內容으로 傳하는바는

一、日本政府가 그建艦內容通報를 拒否한以上 米國政府는 日本政府가 制限外主力艦建造의 意思가잇다고 思하고 第二次倫敦條約의 第二十五條를 援用치안흘수업다 라는 關係에對하야서는 帝國政府로서는 아무러하야도 承服할수업는바이고 建艦通報의 義務업는者에對하야 通報를 拒否하는 理由로 日本 政府가 三萬五千噸以上의 新主力艦을 建造中이라고 斷定하고 이를가지고 일즉이 노리고잇든 自國의 大軍擴推進의 好機로하야 責任을 日本에 轉嫁하야잇슴은 遺憾至極이다 그리고 米國은 天惠를바든 自國의 國防上의 事情에 依하야 何等他國으로부터의 脅威를 受할 業이 업슴에도 不拘하고 그傳統的大艦巨砲主義를 利用하야 攻勢作戰의 强化擴大에 邁進하는以上 帝國政府로서도 當然 그國防의 安全을 達成하는우에서 相當한 程度의 建艦準備를 遂行하지안흘수업다 이에二重의 負擔을 覺悟하지안흐면 안된다 帝國海軍에 잇서서는 아직 英國外務長官의 通牒에關한 公報가 到達하지안헛스나 倫敦에잇서서의 英米佛三國會談의經過等으로 볼지라도 今日을豫想하고잇든터이므로 無制限時代에 突入한 主力艦과 巡洋艦에對한各國新建艦計畫의 推移를 達觀하고 海洋의 新事態에 對處하야 萬全의 準備를 完了할것이라는 態度를 堅持하야 關係各國의 動向에 重大關心을 갓고잇다

伊太利使節에 勳章御贈與

【東京電話同盟】陛下께옵서는 來朝中인 伊太利政府派遣의 訪日使節團과 우리귀족一行中 右親善에 盡力한 功勞를 嘉尙하옵시사 一日 左와如히 勳章御贈與의 御沙汰가계옵시엿다 右御贈與의 傳達은 午後四時外務省에서 廣田外相으로부터 各其傳達하엿다

伊太利國政府派遣訪日使節團長 侯爵 자코모·파우리치 勳一等旭日大綬章(以下略)

全國測候所長會議

來五月五日부터 同十一日까지七日間 東京中央氣象臺에서 全國測候所長을 招集하야 全國測候事務打合會及 氣象技術에 關한 協議會를 開催하기로되엇는데 朝鮮에서는 總督府觀測所長과 京城、全州、濟州、大邱、釜山、平壤、城津、元山、中江鎭等의 測候所長이 出席하기로되엇다

辭令

三月三十一日附發令 (朝鮮總督府)

總督府咸鏡南道警部 我子東治郞
任總督府道警視(七等)
補中江鎭警察署長
慶北迎日總督府郡守 難波 照治
任總督府府尹(六等)
命光州府在勤
內務總督府屬 河野 環三
任總督府郡守(七等)
命慶尙北道迎日郡在勤
平川 保彦
任總督府郡守(七等)
命平安北道熙川郡在勤
光州總督府府尹 杉山 茂一
命濟州府在勤
平北熙川總督府郡守 朴 基煥
命平安北道義州郡在勤
慶南金海朝鮮公立實業學校敎諭 恒吉 義雄
任朝鮮公立實業學校長兼敎諭(七等)
補金海公立農業學校長兼敎諭
宮武 彦一
任朝鮮社會主事(六等待遇)
補平安北道社會主事
竹久 勝藏
任朝鮮社會主事(七等待遇)
補咸鏡南道社會主事
加藤 勝一
任朝鮮產業技師(七等待遇)
補全羅北道產業技師
慶北安東朝鮮道立醫院醫官 山田 良
命全羅南道立濟州醫院長
全南濟州同 車 南守
命慶尙北道在勤
慶林總督府技師 齋藤 延明
(大邱)總督府稅務監督局技師 佐田 吉德
(釜山)總督府稅關監視官 森藤一
(咸北)總督府理事官道 富田 寅一
(中江鎭署長)總督府道警視 渡邊 孝三
黃海同 國分 壽八
濟州總督府府尹 前田 茂助
(平北警察)總督府郡守 宮武 彦一
(濟州醫院長)朝鮮道立醫院醫官 遠山 一
(羅南)朝鮮公立中學校敎諭 中原 潤三
(同)同 今村 道行
(平壤)朝鮮公立高等女學校敎諭 白水 千里
(濟州)朝鮮公立高等普通學校敎諭 茂野 專一
(平壤)同 米谷 榮松
(同)朝鮮公立女子高等普通學校敎諭 川本 晧
(元山)朝鮮公立實業學校敎諭 伊佐 幸作
(忠州)同 高橋 善吉
(全州)朝鮮公立實業學校敎諭 馬渡 勇一
依願免本官(各通)
(平壤)朝鮮公立高等女學校長兼敎諭 粟原 助作
(大邱商業)朝鮮公立實業學校長兼敎諭 原 濟助
近藤 英三
兼敎諭
依願免本官並兼官(各通)
(江原)朝鮮土木技師 富田甚太郞
(全北)朝鮮產業技師 森 潛樹
(忠南)同 田內彌太郞
(慶北)同 森 幹
(平南)同 熊谷 濟
(平北)朝鮮社會主事 平川 保彦
依願免本職(各通)

四月一日發令 (朝鮮總督府)

(大邱高普)朝鮮公立中學校長兼敎諭 中家壽太郞
任總督府師範學校長(三等)
補公州女子師範學校長
(京畿)總督府道視學官 藤澤秀三郞
任總督府師範學校長(三等)
補光州師範學校長
(釜山第二)朝鮮公立實業學校長兼敎諭 高田 邦彦
任總督府道視學官(四等)
命京畿道在勤
(平壤商業)同 宇野 勇彦
任朝鮮公立中學校長兼敎諭(三等)
補平壤第三公立中學校長兼敎諭
(咸南高女)朝鮮公立高等女學校長兼敎諭 村松乾太郞
補群山公立中學校長兼敎諭 牛場 平七
(京城第一)朝鮮公立中學校敎諭 粕谷 靜郞
任朝鮮公立中學校長兼敎諭(四等)
補海州西公立中學校長兼敎諭
(新義州中學)同 筒井 誠
任朝鮮公立中學校長兼敎諭(四等)
補安岳公立中學校長兼敎諭
(大邱高普)同 森崎 重次
任朝鮮公立中學校長兼敎諭(五等)
補新義州公立中學校長兼敎諭
(東萊高普)同 廣兼 弘毅
任朝鮮公立中學校長兼敎諭(五等)
補慶州公立中學校長兼敎諭
(群山中學)朝鮮公立中學校長兼敎諭 大井 利明
任朝鮮公立中學校長兼敎諭(五等)
補順天公立中學校長兼敎諭
任朝鮮公立高等女學校長兼敎諭(三等)
補平壤公立高等女學校長兼敎諭
(春川高普)朝鮮公立中學校敎諭
(京城第二)同 國谷 宗順
補平壤第一公立中學校長兼敎諭 鶴山 利平
朝鮮公立實業學校長兼敎諭
補釜山第二公立商業學校長兼敎諭 村田 稔
同
補大邱公立商業學校長兼敎諭
朝鮮公立實業學校長 渡植彦太郞
免會寧公立高等女學校長事務取扱 兼務
(平壤中學)同 高力 得雄
補統營公立中學校長兼敎諭
(新義州中學)同 森 廣美
補公州公立中學校長兼敎諭
(全州高普)朝鮮公立中學校長兼敎諭 石川 輝彦
補全州北公立中學校長兼敎諭
補長湍公立農業學校長兼敎諭
任朝鮮公立實業學校長兼敎諭(七等)
(沙里院農業)同 金子孝次郞
補咸興公立商業學校長兼敎諭
任朝鮮公立實業學校長兼敎諭(四等)
(大邱商業)同 津田 勝一
補江景公立商業學校長兼敎諭
任朝鮮公立實業學校長兼敎諭(四等)
(江景商業)同 中光 彌平
補江陵公立商業學校長兼敎諭
任朝鮮公立實業學校長兼敎諭(三等)
(新義州商業)朝鮮公立實業學校敎諭 江副 正治
補京城公立工業學校長兼敎諭
任朝鮮公立實業學校長兼敎諭(三等)
本府實業學校敎諭 甲木 牧夫
補平壤公立商業學校長兼敎諭
任朝鮮公立實業學校長兼敎諭(三等)
朝鮮公立高等女學校長兼敎諭 荒木孝次郞
補麗水公立高等女學校長兼敎諭
任朝鮮公立高等女學校長兼敎諭(五等)
(光州高普)朝鮮公立高等女學校敎諭 岡本良次郞
補新義州公立高等女學校長兼敎諭
任朝鮮公立高等女學校長兼敎諭(五等)
(平壤高普)朝鮮公立中學校敎諭 加藤 虎潤
補海州旭町公立高等女學校長兼敎諭
本府實業學校敎諭 石塚 爲一
補會寧公立高等女學校長兼敎諭
任朝鮮公立高等女學校長兼敎諭(四等)
(大田中學)同 細田喜三郞
補咸興公立高等女學校長兼敎諭
任朝鮮公立高等女學校長兼敎諭(四等)

인텔리層의 失業防止等要望
第九回總督面會日

南總督이 民意를 聽取하는 第九回 定例面會日은 一日 午後三時부터 倭城臺 官邸에서 開催 먼저 家庭經濟硏究所 講師 宮川憲弘氏가 家事講習所 設置에 對하야 尹定夏氏가 인텔리階級의 失業防止及 計理士法의 朝鮮施行에 對하야 各其 要望한 다음 前土木協會 常務理事 兒玉孫氏가

一、勞動需給調整의 根本策樹立
一、勞動者訓所設置

에 對하야 意見을 述하고 朝鮮汽船社長 森辨治郞氏가

一、對北支航路開發及 朝鮮產品의 商圈擴張
一、海員待遇 內鮮間의 海員組合問題

에 對하야 要望한後 朝鮮米輸送運賃에 關하야 公定運賃을 決定하기 爲하야 總督府 船會社 荷主等을 網羅한 公定機關을 設置하기바란다고 海運問題에 對한 意見을 具申하고 朝鮮汽船社長 山田勝氏도 沿岸航路에 對한 要望이잇고 最後에 繼續的으로 森氏가 總督의 紹介로 某篤家의 寄贈을 買受하엿다고 말하자 南總督은 그것은 잘못이다 나는 昭和五年以來 他人에게 사람을 紹介한 일이 업다 나의 兄弟의 請이라도 謝絶한다 萬若 總督의 名稱이라도 利用하는 者가 잇스면 그것은 全然 僞物이다 ...

堂島市場 銘柄別取引復活

【大阪電話同盟】堂島取引所에서는 銘柄別精算取引에 關한 業務規定一部變更認可를 商工省에 申請中이드니 三月三十一日附로써 務省으로부터 認可되여 左와 如히 變更하야 銘柄別取引을 復活하게되엿다

▲玄米 朝鮮米標準米四等建 菱ク四等(二、三、五等) 丸木四等(同上) 角フ四等(同上) 白米仁川一等(各精米所商號印入及 袋入) 備考 括弧中은 代用銘柄等級 賣買手數料 五十石에 對하야 一圓八十錢 朝鮮白米百二十五叺又는 二百五十叺에 對하야 一圓八十錢 (以下略) 그리고 實施期日은 大體로 四月中旬頃이다

夕刊後市況 一日

◆各地期米 後止◆

	當限	中限	先限
大邱		三·六	[illegible]
釜山	三·[illegible]	三·[illegible]	[illegible]
群山	三·九	三·二	[illegible]
木浦	—	三·[illegible]	[illegible]
神戶	—	—	[illegible]
下關	—	—	[illegible]
名古屋	—	—	[illegible]

◆大阪綿花 後引◆ 當限 — 先限 五六八○
◆大阪人絹 後引◆ 當限 七二九○ 先限 七七一○
◆東京人絹 後引◆ 當限 七四五○ 先限 七八○○
◆福井人絹 後引◆ 當限 七二九○ 先限 七六九○
◆橫濱生絲 後引◆ 當限 六七五○○ 先限 六八八○○

四月號 鑛業朝鮮 發賣中
第七十三議會와 鑛業界의 展望▲金報國▲世界의產金狀況▲採鑛法▲開坑은어떠케할것인가▲特殊鑛物調查 人 ... ▲鑛業家 ...
定價二十錢 發行所 株式會社 大同出版社 京城鍾路三丁目 振替京城一○二一九番

支局大募集! 雜誌 ◎希望者는 ◎支局地域 ◎雜誌及營業部數 ◎雜誌及營業方案 ◎履歷槪要等을 記送要 ◎保證金制업시 有利條件으로 支 ◎詳細規定은 注文次第送呈

月刊 雜誌 農業朝鮮 四月號發賣中
定價 一個月二十錢 一個年二圓四十錢
發行所 株式會社 大同出版社 京城鍾路三丁目 振替京城一○二一九番
農村更生計畫▲農村經營의 ... ▲肥料의 ... ▲多收 ...

可驚할最近學生界風紀!

某專門校入學試驗 體格考查人員中 性病患者가約一割

中等學校時代의不品行이罹病의主因 子弟訓育에重大問題

입학난(入學難)이란 우울한현상은 봄마다새삼스러운이야기거리가되거니와 요지음은 과거의학파성적편중에서 체격검사에치중하는 고사방침을취하게되어 여기에 따라과거에 보지못하던새로운사실하나가 들어나게되어서 교육계는물론 일반사회의관심을끌고잇다 — 시내모전문학교의금년 신입생신체고사를하여본결과 고사인원사백명가운데서 그중약일할강인 사십삼명의 성병(性病)환자를 발견하게되엿다 이무서운성병에걸린 학생들은 모두금춘에 중등학교를졸업한 십팔구세의소년들로서 더욱세밀한진찰을한다면 더만흔수효에달할것갓다고하며 더욱그들의 대부분이 대도시의 중등학교출신생들이엇다는것이 들어낫다 자제의도시유학을시키는 학부형과 그들을지도교육하는 교육자는물론 일반사회의 새로운인식을 부르짓지안흘수업게되엿다 과연 성병이라면 일생일대의병이요 또심하면 대대손손에미치는 악성의전염병으로 그예방과치료는 국가적문제가되여잇거니와 겨우십팔구세밧게못되는 중등학교소년들이 다니지못할곳에 발을드려노하 열심공부하여야할 시기를 헛되이치고 민족을멍치게한다는것은 실로심상치안흔 사회악(社會惡)의 대문제이다

受驗準備中에 墮落이아닐까 保導聯盟當局 談

그런일이 물론업는사실이라면 참으로 놀라지안흘수업습니다 더 성적(性的)방면으로도 눈을뜨기시작하는 남녀중등학교생 사이에 흔히 연애문제가만히생겨 우리로서도 이방면에대하야서는 특별한주의를하고잇는터이나 부모와선생의교훈을듯지안코 눈을속여가며 왕왕히생기는 자미롭지못한일은 참으로유감천만으로여겨왓는데 이런일까지 잇다니 참말어이업습니다 생각컨댄 문제의학생들은 중등학교를마치고 수험준비를 한해또는이태하는동안에 자미롭지못한곳에 발을드려민자가 대부분이아닌가생각된다 적어도 중학교에적을둔동안에는 어런방면에라하야 무서운성병에까지 감염하는것은 업슬것으로믿습니다 어쨋든지 문제는 중대한것으로 아모로 우리의책임이 더욱더욱큰것을 다시금각오하지안흘수업습니다

社會惡의放逐이 善導의先決條件

寒心한紅顏少年들의不謹愼 擔當醫師 某氏談

모전문학교 신입생 신체검사를 마친 본 의사 모씨는 다음과 가티 말 한다。

해마다 몃 사람식 이러한 환자를 발견하엿스나 금년처럼 만흔 수효는 처음입니다 아직도 열칠팔세의 그야말로 홍안소년들이 이러케 무서운 성병에걸린것을 볼때 의사로서라기보담 한사람의 사회인으로서 가슴이 서늘한 느낌을 가지지 안흘수 업섯습니다 실로 놀라운 현상입니다 더욱 그들의 대부분이 만석화자이며 시골서 서울와서 유학한다는 소년들 입니다 병상의 진행을 보아서 걸린지 오래 된것이 만헛습니다 그들은 대개 어두운 거리에서 전염된것이므로 새삼스러히 사창(私娼)제도의 해독을 절실히 느꼇습니다 자극을 강하게 바들 소년시기에 엇지의 잘못으로 일생을 망칠 염려가 되는 경우도 엇스며 더욱 근심되는것은 그들의 열신상의 문제도 문제려니와 널리 우리의 후대에까지 미칠것이 또 무서운 일입니다 그들이 발을 들여노흘수 잇게된 사창의 어두운 거리를 이 사회에서 업시하여버리지 안는한 이 놀라운 현상은 갈사록 더해지지 안흐리라고 누가 보증하랍니까 현재유곽의 공창(公娼)은 검미(檢黴)제도가 잇스나 사창은 제도상으로는 인정치 안허 이왕 엇는 이상 이것도 법규로서 검미를 하여야 할것 입니다 학부형과 학교당국이 한가지로 이런 소년들의 잘못 가는 길을 막도록 하고 또 법으로서 막도록 하여야 할것을 느낌니다

寄宿舍의大擴張과 下宿指定이必要

中東學校長 崔奎東氏 談

여기에 대하야 중동학교교장(中東學校校長) 최규동(崔奎東)씨는다음과가티말한다

내가 교육자로서 삼십여년을지나는동안에 이것은 실로처음듯는 어처구니게 한심한 일입니다 교육자로서 책임을 느낌니다 우리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행동과 환경에 대하야 적지안케 감시하고 조치못한곳에 출입을 엄금하야 발견되는대로 엄중한처분을 해왓는데 물론다른학교도 다그러캣습니다 그러나 근래에와서학생들의 기풍이 일면으로대단히 저급하야 저급한향락에흐르고잇는것은 한가지 사회적문제로서 반드시 교육자의 노력으로 만흔해결하지못할것이므로 일반사회에서도 학생의 행동이 탈선되는것을 보거든 그들의 부모나 형처럼 꾸짓고 타일러서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합력하면 어느정도의 효과를 어드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학생으의거리를 이사회에서 업시하여버리지 안흐면 안되겟스나 그것은 이상이요 현실상의 해결책으로는 기숙사의 대확장과 하숙구역의 제한과 지정을하야서 교도의 철저를 기하지안흐면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문제에 대하야는 사회전체가 협력을해서해결책을 강구해 주엇스면합니다 그러나 그런일부의 불미한병을 가진학생이 잇섯다고는 해도다른방면으로도 우리학생의 전진이 업다는것이라고 보아서는안될것입니다

綜合宣傳週間協議會

昨日民間側各方面人士八十名을招致하야 總督府에서實施方法等決定

[illegible]=총독부에서는 시국하[illegible](…化)의 사태에 대처하여 견인지구(堅忍持久)정신을더 강화하야 장기전(長期戰)중 다소해이하야 지는듯한 민심에 대하야 어때다시 시국재인식을 철저히 할필요가잇스며 또는 종래의 시국선전이 순전히 관청내지 이에속한 선전에 불과하얏스나 이번에는 각종기관、각종단체를 연락하야 민중선전망을 조직하야 종합선전효과를 나타나도록 하고자 종합선전주간(綜合宣傳週間)(가칭)을 오는 이십구일부터 일주간 실시하고자 일일오후두시반부터 총독부 제일식당에 부내각신문통신기관의 대표자를 위시하야 각은행 회사、각종교단체 대표자 기타민간방면을 초치하고 좌장안부소장(安部少將)등재하에전후십개항목의 실행사항 기타여러가지에 대하야실행방법기타를 협의한후 오시경에 산회하얏다

◇實施物品及方法

一、紙、木綿及燃料節約方法及貯蓄勵行의 徹底를 圖키爲하야 비라를作製配布
二、포스타ー作製配布
三、官公署、學校、會社、銀行、工場等에서 講演、講話의 實施
四、各種團體에서 座談會其他適當한 方法에 依하야 徹底를 圖함
五、資源愛護展覽會或은 節約展示會等의 開催(京城府에서는 四月末부터 五月初에 亘하야 展覽會開催의 豫定)
六、家庭에 對한 徹底
七、電車、汽車、自動車等의 乘物其他多人數集合할 場所를利用하야 宣傳
八、新聞、雜誌、放送에 依하야 宣傳
九、本運動을實施準備키爲하야中央、地方에서 關係官公署及關係團體와의 懇談打合會를 開하고 具體的方法을 定함

民間側實行 委員選定

그리고 다시민간측으로 실행위원을 작정하야부소장으로부터 다음과가티 지명결정한후 총독부내 정위원간사중(과장、사무관)에 선출된 실행위원은 추후하야 총독부당국에서 결정하기로되엿다

愛國婦人會主事	吉永貞
朝鮮貯銀常務	白石甚吉
朝鮮金組聯合會金融部長	本田秀夫
京城府商議會頭	賀田直治
京城府總務部長	松島淸
京城聯合靑年團長	前田昇
京城敎化團體聯合理事	肥塚正太
綠旗聯盟	津田榮
時中會理事	崔麟
維新會派	梁柱三
春秋會幹事	分島周次郎
京城興業組合長	御手洗辰雄
同上	李相協
放送協會放送部長	平田[illegible]
在鄉軍人京城聯合會長	安部少將

【사진은 회의광경】

朝鮮鄉土文化調查

第二隊 黃、方兩氏 濟州·義州·龍川에 本社三大事業本格的舞台에

본사에서 지령오천호와 혁신오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야 조선특산품전람회(朝鮮特産品展覽會)와 세계현세지도(世界現勢地圖)의 발행 조선향토문화조사(朝鮮鄉土文化調查)의 삼개봉사업을지난신년벽두에 발표한이래 각각 그사업의 준비와 착수에 한갓 매진하여 나가고잇다 그중조선의 자연과 인문을여실히 조사기록하야 이를 영구히 전하고저하는 조선향토문화 조사사업에 대하야는 어미 그조사내용 요목과 사업위원이며 편찬위원도 구성결정되고 제일회조사지역과 조사책임자도 발표되여 지난삼월오일 본사 출판부주간 리은상(李殷相)씨가 전남(全南)지방에 그조사의첫길을 떠낫섯는데 어에뒤이어작일밤에는 본사출판부 촉탁 방종현(方鍾鉉)씨가 오후열한시십분 경성역발차로 탐라(耽羅)의나라 제주도(濟州島)의향토문화 조사의장도에올랏다 또 본사출판부 촉탁 황의돈(黃義敦)씨는 평북 의주군(義州郡) 용천군(龍川郡)방면으로 어입오후 세서방경성역발 열차로 뜨기로향토문화조사의 길을떠나게되엿다 (사진은 상으로부터 황、방양씨)

朝鮮道路令 來四日公布

반도에잇서서 도로의근본제정을 확립하고저 입안된 조선도로령(朝鮮道路令)은 오는사일 공포하기로되여 신시대에적합한 내용을가지고 도로에관한 제반의 사항을 제정하기로되엿는데 그개요는 아래와가다고한다

一、도로와도로의 부속물을명시하여 부속물에는 도로의규정을 준용(準用)한다
一、도로를 구성한물과 그외의 물건(物件)과 사권(私權)과의 관계
一、새로히 도로、도로부근의토지 또는도로의부속물이 될한 토지물건에대한 법의적용
一、종래의도로의종류는 일등、이등 삼등과 등외의도로로 나누어엿스나 이것을 다음과가티 사종으로나누어서 그의인정권(認定權)도 개정하엿다 국도(國道)ㅡ총독 지방도(地方道)ㅡ도지사 부도(府道)ㅡ부윤 읍면도(邑面道)ㅡ읍면장
一、우에 의한도로의 관리변경(管理變更)
一、도로구역의결정
一、도로에관한 공사또는 유지(維持)의 시행(施行)
一、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에잇서서는 특히 수익자(受益者)부담과 손상부담제도(損傷負擔制度)의 설정
一、손해보상제도(損害補償制度)의 확신설
一、불복신입(不服申立)에 관한 재정제도(裁定制度)의제정
一、본령이외의 도로의 처치에 관하여서는 본령을준용(準用)할것

新門內幼稚園擴張

부내 서대문정(西大門町)일정목 신문내유치원(新門內幼稚園)에서는 새학기를 마지하야 종래의 원사를개축하는한편 시설을 확충하여 종래 사십명가량 모집하던것을 칠십명으로 증원하기로하고 방금원아를 모집중인데 만륙세이하 만사세이상 남녀아동은 누구나 입원할수잇는데 입원하랴는 이는일원까지 지원하면 조타고한다

歷

▲四月二日(土)陰二月二日▲干支 甲子
▲日出 六時十九分▲日入 十八時五十六分
▲日南中 十二時三十七分五秒
▲晝間 十二時間三十七分
▲月出 六時五十分▲月入 二十時四十二分
▲滿潮 (仁川)時刻六時十五分과十八時二十五分

총딱

사월일일에 정가표가 박괴엿중 주목되는것에 화장품이잇다▲코티니 무어니하는서양화장품들도품이 오게되여 상점에서도대체그럽자자 어서진것은이럼저 터바가오일▲속은탱탱비어가지고라도 화장만 번번히 하고오던어나 반즈르르하면 그만이라고비판 화장품만 사쓰면 그만이라고??갓지러운 일이어…◆외양의화장도 그럴듯은 하다해도 분홍치면가려 발려도 안되는 마음의 화장은 어쩌는고。◆편창공왕직공한극의『도리』잡이로『며바른종연지거톨하야 협「도전」왕행잇섯다고 ◆도적잡이가아니고 공자거톨행단가? 「조존잡어자?」

五月初로延期 警察部長會議

도지사회의에에어서 사월이십오일부터 삼일간 열릴예정이든 각도경찰부장회의는 회의중 청국신사대제(靖國神社大祭)가 집행되므로 예정을변경하여 오월이일부터 삼일간 총독부에서개최케되엿다

스포ー츠

東拳部內試合 今夜本社講堂서

市內水標町에잇는 東洋拳鬪會에서는 今二日午後七時半부터 太平通朝鮮日報社講堂에서 晝間部와 夜間部의 對抗戰을 擧行할터이라는바 이날은 斯界의猛將 鄭福壽君과 韓龍洞君도 出戰할터이며 入場料는 二十錢均一이라고한다

甲子園野球第五日

【甲子園電話同盟】中等選拔野球 準準決勝……海草中學對 中京商業戰은 一日 午後 四時 二十分부터 中京先攻으로 開始한바結局 四對〇으로 中京이勝利하엿다

海草中學 000000000 0
中京商業 120010000 4

그리고 今二日의 三試合 對陣은 다음과 갓다

【第二回戰】
東邦中學對浪華商業
明石中學對海南中學
甲陽中學對岐阜商業

浪華商業 301001004A
[illegible]中學 100100213
8―9A

今日의運動

▲拳鬪=東洋拳鬪會主催 晝間部對夜間部對抗戰 午後七時半 太平通朝鮮日報社大講堂(觀覽料二十錢均一)

獵銃作亂中誤射 學童等八名重輕傷

龜城五峯小學校에不意慘變

【方峴支局特電】일일오전아홉시 반쯤 평북귀성군오봉면(平北龜城郡五峰面)오봉(五峰)소학교 교정에서 교장오용철(吳鏞喆)씨의 유남 학대(鶴大)(一三)가 아버지의 사냥총을가지고 작난하다가 그릇발사되여 입학때문에 모혀 잇든 동교아동일곱명과 부형한명에게 명중되여 대소동이르켯다 중상자는 오봉면양지동(五峰面陽地洞)백상빈(白商彬)(一〇)변봉린(邊鳳麟)(一四)김성근(金成根)(一三)세명이고 경상자는 배동욱(裵東旭)(一二)장진상(張鎭相)(一〇)박봉산(朴奉山)(一〇)남양동(南陽洞)사는 최진흥(崔振興)(一三) 내양동(內陽洞)장용수(張龍洙)(六〇)一부형一등 다섯명이다 이급보를접한 귀성서(龜城署)에서는 임(林)사법주임이 최공희(崔公熙)를 대동하고 현장을 임검하엿다 또한 부상자다섯명은 정주의원(定州醫院)에 수용하고 응급치료중이다

鐵窓生活을 自願한靑年

먹고살도리가업서서 형무소를 가고저 마지막한계를꾸민 청년이엿다 본적을 충남대전(大田)에 두고 주소가일정치못한 김귀동(金貴東)(二七)이라는 스물일곱살된 청년은 삼십일일오후다섯시쯤에 부내현저정(峴底町)서대문 형무소공사장에서 죄수들이가지고일하는 쓰다듬는마치한개를훔치다가 간수에게 발견체포되야 서대문경찰서로 너머왓는데 취조한결과 그는 배고픈것을참을수가업서 형무소에나가면 먹을걱정은 업서질것이라고 형무소를가려고 일부러 형무소일터에가서 죄수들이든 쓰마치한개를 훔친사실이 판명되엿스므로 그서에서는 가엽슨그에게 일자리를 구해주려고 노력중이라한다

飮毒自殺未遂

부내신당정(新堂町)삼백십이번지 김천년(金千年)(一八)은 이십팔일오후세시쯤되어 관수정(觀水町)사십일번지 최덕호(崔德浩)집에서 양재물을 마시고 자살을 도모하엿스나 부근병원의응급치료를 바더 생명만은 무사하게되엿다 원인은 생활난이다

京畿道管內 小學校長異動

해마다 신학기와합께되는 소학교장과 군재근도시학의 정기이동중 경기도관계는 신교육령실시관계로 다음과가티 오십삼명의 다수에달하는데 그중조선인 관계는 양평(楊平)군재근도시학 박신화(朴新華)씨가 김포동(金浦東)소학교장에 된것과 송전(松田)교장으로 잇든 맹준섭(孟駿燮)씨가 과천(果川)소학교장으로 된것뿐이다 도혼도로부터 교장으로되는 도시학으로 되는 영천조(永川組)는 아홉명 어더전기이동밧게도내에서는 신임교원백팔십구명의 임명과 재적원이동이 이백여명 합이백구십명가량의교원이동이 수일내로결정되게되엿다

新任校	氏名	前任校
利川第一長	宮田重德	漢南長
舞鶴長	河野祝一	富川郡在勤道視學
金浦東長	朴新華	楊平郡在勤道視學
始興郡在勤道視學	中園勇次	安龍長
富川郡在勤道視學	蒲原謙男	齋洞訓
松浦長	飯田作次郎	孝昌訓
大旺長	河井文郎	抱川長
[illegible]長	田野邊鶴一郎	陽川長
佳納長	蓮間森信	芙蓉長
宮坪長	樋ノ上士[illegible]	[illegible]岩訓
加山長	安永富人	蒼水長
蒼水長	石見利明	安仲訓
淸平長	國守乘太郎	吉祥訓
[illegible]長	稲垣[illegible]	正南長
靑雲長	海老原[illegible]	器興長
江上長	姫野正司	大旺長
西南長	江口正信	古三長
三串長	森基數	金浦南長
新邑長	秋吉仙之助	金浦東長
[illegible]川長	陣川淸	水原新豐訓
松田長	松田秀治	始興長
蒲谷長	上眞英夫	陽川訓
駒城長	芳賀良[illegible]	大江長
陽城長	兒島隆一	始興郡在勤道視學
孔道長	村上茂光	佳納長
光宣長	伊藤矢三郎	鄉南長
漢南長	桐原重治	利川第一長
芙蓉長	佐藤只三郎	康川長
古德長	重信美保	西南長
半月長	伊林彌久	玄德長
安龍長	外山熊市	淸雲長
鄉南長	津田理八	孔道長
正南長	松本鶴一	汶山長
始興長	春田房幸	新邑長
果川長	孟駿燮	松田長
蘇萊長	前村源松	芳山長
南洞長	井上周藏	加山長
吾丁長	加藤亨二	朱安長
龍游長	牛島吉道	兩寺長
安[illegible]長	佐伯正	高[illegible]長
[illegible]砂長	千葉長治	舞鶴長
陽川長	村田傳十郎	果川長
桂陽長	増田將平	[illegible]安長
高村長	小林九郎	宮坪長
芳山長	土屋菊丸	素砂北長
大江長	大松長三郎	高村長
抱川長	森[illegible]則	出向
楊平東長	長谷川四數	出向
器興長	坂本播	江上長
[illegible]安長	鴨[illegible]	出向
金浦南長	金子忠男	出向
白田長	上村一夫	出向
[illegible]長	中根靑治	仁川旭訓

祝入學

梨花女專

文科

金正淑 成善姬 李貞德 三井みき
鹽原芳子 高玉福 高玉南 湯淺千貞
金愛鎬 鄭龍珠 鄭榮萬 李英子
金顯任 李貞洙 許妙玉 李雲子
朱時禧 金五德 金信正 金庚申

音樂科

金施恩 金仁壽 李貞寶 洪姓淑
金善姬 李仙明 崔圭嬪 南元祐
赤堀照 李姬錫 崔瑛玉 車令禮
具然性 魚厚福 文貞順 湯錫觀
金貞益 金庚林 鄭愛施德 趙敦福
崔鳳祚 金姬錫 柳義卿 鄭貞植
金永子

家事科(四十名)

吾春嬪 姜永玉 李春淑 金敬蘭
權姙淑 尹再順 金炳烈 林蓮順
徐慣愛 方完珍 金順瑞 文恩愛
金玉善 金貞順 李雲漢 高成煥
梁寶淑 鄭金鳳 咸仁信 金錦秀
金春一 金恩鎭 黃桂玉 金貞姬
洪汶瓊 朴炳淳 朴宗姸 姜貞淑
金芝洙 柳寶卿 邊仁淑 李錫會
朴辛玉 孫會淳 李貞愛 文順玉
沈相武 洪姝瓊 朴德卿 李卿玉

梨花保育學校(四十五名)

崔銀金 洪基男 徐愼南 崔龍珠
李甲順 高炳淑 申鎭淑 尹海守
張英華 朴松淑 李春子 金敬子
張關英 孫貞淑 高寶信 鄭順銘
金吉善 全貴植 鞠福振 吳敬玉
趙榮子 金永愛 林漢愛 金永烈
禹貞玉 方壽福 方天姃 金順興
楊點順 全松玉 朴善子 李貞一
安松姬 姜松得 朴仁秀 高貞淑
鄭淑珍 李馬利亞 韓蓮玉 金瑞愛
成禮順 姜恩順 李仁寶 林鎬淳
金鳳鎬

總計 二十五萬圓·新春大景品附大特賣!

百補丸한제사면

발재봉틀、純金時計줄、황소、삼칭자개장 백동칠첩반상긔、자전차등을타게된다

勿失好期! 只今이百補丸服用의最好期

●大補元氣 補血强壯劑로京鄕各界 貴族名士를爲始하야 滿天下服藥家諸位의 絶大한 賞讚과 愛用을밧고잇는 百補丸은 事實! 朝鮮藥業界有史以來 最高賣上의 超記錄을突破하고잇슬뿐아니라 百補丸이 天下無敵의 大强壯劑로世界各國에까지 輸出되는것도 오직 그處方이神秘하야 누구에게든지 그效力이卓越하고 뚜렷하게나는까닭입니다

過色 過飮 過勞로因한 早老와虛弱엔 百補丸以上이 다시업습니다

●只今百補丸을服用하면 藥效도 잘날뿐아니라 二重으로 大景品을타게됩니다 더욱이 空籤은一口도無하므로 大景品은누구나 다타게되며 等外賞까지라도 一、二等賞과 對等의價値잇는 珍貴品을 進呈하는 公平한特別式 景品特賣입니다 이런機會에 效力조흔 百補丸을쓰시요

男女老少를勿論하고

◆元氣가 不足한분 陽氣가衰弱한분 ◆胃腸이 虛弱하고 口味와 食慾이업고 飮食消化가 안되는분 ◆神經이 衰弱하고 記憶力이 減退되는분과 肺가 弱하고 貧血症이잇는분 ◆手足과 下초가冷하고 腰 節腰痛이잇는분 ◆過飮過色人、咳嗽가잇는분、活氣가업고머위고早老하는분은 即時 百補丸을쓰시요 全身五臟六腑를 다完補합니다

봄절에 百補丸을服用하면 效力이倍勝

神人道師 葛玄眞人의秘方藥
補陰補陽補腎補肺補心補腦補脾補胃補全身百補 不老更少年仙藥
根本的回春 壯陽强精强筋强骨 延年 平生無病健康長壽劑
百補丸 一劑十圓

勿驚! 朝鮮初有의大景品

景品만總額八千九百八十圓

●누구나라는大景品種目

等級	人員	景品
特等	一人	足踏裁縫機(발재봉틀)一臺
一等	二人	純金時計줄(男子用 和信製品)一組式
二等	五人	黃牛一頭、三層자개장、十八金腕卷時計、高級大型洋服欌、大型鋼鐵重金庫中一品
三等	二十人	自轉車一臺、純白銅七첩飯床器一式、電氣時計(大型掛時計)ラヂオ(四球)中一品
四等	一百五十人	卓上時計、緣付鏡、毛布(요)、家庭用私設盌一式中一品
五等	三百人	洋傘、世界一週萬年筆中一品
等外	全部	栗谷先生、金玉均先生、吉田先生等의肖像筆屛風畵一組式

特等으로부터 等外까지全部當選、空籤은一口도無함 等外도 全部珍貴賞品

特賣規定
▲百補丸一劑注文하시면 景品券二枚式
三劑共同注文하시면 謝禮品一外에 無料添呈하는 景品券六枚를 또進呈합니다
定價五圓마다 景品券一枚式의比例

特賣期間 自 三月一日 至 五月末日

當選發表 七月五日後 本紙上에發表함

生男生女 天下待望의 世界的 婦人靈藥 一劑 七圓
부인자궁병·냉병 경도부조·대하증에 **婦人百補丸**

京城府堅志町五ノ一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電光六三二番·六二三番·三三〇番·振替五番

中部版

仁川汚物掃除
昨日부터府에서直營

[仁川] 오래동안 문제를 품어 오든 인천부 오물(汚物)소제는 일일부터 부직영으로 하게되어 청소부(淸掃夫)일백사십여명을 새로 채용하엿다 그리고 위생계 사기일동은 일일오전중에 청부업자(請負業者)로부터 기구、수레 등 전부를 인수하야 동일오후부터는 직영사업의 제일보를 것게되엿다

本鮮紙齡六千號 革新五週年紀念
府民館서 全東洋歌舞大會
藝妓、妓生、滿洲、俄羅斯 男女俳優三十餘名出演

本報東西部販賣所主催

본사경성서부(西部)및 동부(東部)판매소주최와 본사사업부후원으로 오는칠일부터 사흘동안 경성부민관에서 전 동양가무대회(全東洋歌舞大會)를 열기로되엿다 이것은 조선일보지령(紙齡)륙천호와 본보혁신오주년기념과 서부판매소 설치십오주년기념으로 개최하야 본보애독자를 위안코저하는것인데 출연자는 조선기생을 비롯하야 내지예기(藝妓)와 만주국남녀배우와 로서아남녀배우들로 총계삼십사명의 다수에 달할터이다 그프로그람은 「레코드춤」과 북춤과 좌창(坐唱)과 만주국의신화무극(神話舞劇)및사극(史劇)과 로서아의 「레뷰」와및 「딴스」독창등으로 조선서는 일즉이보지 못한 조화연예를 보이게될것으로 화장면이 버러질터이다 주최측에서는 방금 만반준비를 다하야 어찬란한 출연일을 손곱아 기다리고잇는데 꼿피는 봄철에 두번 보기 어려운 이동양가무대회는 오로지 장안의 인끼를 독차지하게되리라한다

四面四里를包容
開城府域二培로擴張
一日부터里는町으로改稱

[開城] 개성에도 서가지계획령(市街地計劃令)에 따라서 일일부터 부행정구역을 확장하기로 되엇는데 어번에 편입된 구역은종래의 부내와접근한 게동군(開豊郡)일대로 중서면 판전리(中西面翁前里)와 청교면덕암리(靑郊面德岩里)전부가 편입되엇스며 도령남면룡흥리(嶺南面龍興里)일부와 청교면 고남리(古南里)가 대부분편입되엿다 이와가티 사개면사개리를 부행정구역으로 편입시키게된것은 개성부의 백년대계를 위한 기초적사업으로종래개성부면적의배인 상이 화장(面積一、九方里)되며 따라서 호수는 일천오백 륙십팔호, 인구는 팔천일백륙십칠명이 증가되엇다 그리고 새로들러질 정명(町名)은 다음과갓다

▲中西面翁前里 社稷町
▲靑郊面德岩里 德岩町
▲靑郊面古南里 黃金町
▲嶺南面龍興里 雲鶴町

區域變更따라 四面財産分割

[開城] 별항과가티 개성의 백년대계를 위하야 현재 약배이상의 면적을 부역으로 확장합과동시에 편할구역의 변경되는 사개면의 기본재산처분는 다음과가티 결정할것을 도당국으로지난삼십일 부회에 자문하얏는바 만장일치로 가결되엿다

▲中西面=六分五厘는 開城府에 殘餘는 中西面에
▲嶺南面=三割四分은 開城府에 殘餘는 嶺南面에
▲靑郊面=三割九分은 開城府에 殘餘는 靑郊面에
▲津鳳面=八割九分은 靑郊面에 殘餘는 鳳東面에
▲津西面=一割二分은 嶺南面에 殘餘는 津西面에

都計、淸掃兩係
一日부터課로昇格

경성부에서는 일일 신년도부터 기구(機構)를개혁하야공영부 市計畫係)와 총무부위생과(衛生課)의 청소계(淸掃係)를 새로과(課)로승격시켯다 그래서 종래 토목과의 도시계획계(都計係)는 도시계획과로 공영부(工營部)에 예상부(三部)시산과이든것이 부서오과로되엿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에는 계장이든 미와전차랑씨 청소과장에는 계장이든 고하국태랑(古賀國太郎)씨가 승임되엿다 그리고 도시계획계와 청소계직원은 모두도시계획과청소과로 임명되엿다한다

開城私立普校도 尋常小校로改稱

[開城] 개성에도 개정교육령실시와함께 사개공립보통학교는전부명칭을고처 일일부터 새교명으로개칭되엿는데 어에따라 남어지 사개사립보통학교의명칭도 개정케되엿다 어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의사를존중하야 구명만은 그대로 두고보통학교를심상소학교로 변경하얏(變更)다

▲松都普校는 開城松都尋常小學校
▲貞和女子普校는 開城貞和尋常小學校
▲好壽敦女子普校는 好壽敦尋常小學校
▲中京普校는 中京尋常小學校

부내종로통지(東本町)공립학교를(公立學校)설치하고 자어보험(簡易保險)지국(支局)을 이곳에서 취급하고잇다 엽무가 착구 확장하여지서 현재의청사는 너무협착하므로 어번에 따로 분실을 두게된것이라한다

어제生徒·오늘은先生님
京畿道內各小學校新任教員189名
昨日道廳에서一齊辭令交附

과거몃해동안 정성을 다하고 짜하은 형설의공어잇서 대망의 "선생님"이되는날은 드되여왓다 경기도내에서 오늘부터 부려지는 소학교학교수 일백사십기다리고로 그만두자리를 채우기위하야 새로임명된 소학교원임백팔십구명에대한 사령교부식(辭令交付式)은 어늘오후한시부터 도제일회의실에서 거행되엿는데 식은사령교부 관리보고가잇슨다음감자(甘蔗)지사로부터 "새로운선생님"에게보내는일장훈사가잇슨다음 여러가지 지시와 학무과장으로부터 여러가지 시작과 학무과원으로부터 려 일반적 주의가 잇슨다음 어늘새선생님들에게 거장과선의초청이되여온 엽지소개(任地紹介)로식을마치자 어제까지 거든정든 교정을 떠나게될 앞날의 새빛 모소학교로돌아가는 직합을자리에 채우기 위하야 사범학교졸업생모에 단조와모자 여섯으며 아직신사복의준비가업서 바꾸난호도와 여자사범생들의 양복을 그냥입고잇는 여훈도들은 한가지 뜰에서 배운든우정도 이것을마지막으로 아직보지못한 산천과 아동들의 얼굴을 가슴에그리며 기쁘고도 활발한얼굴로 헤여저 도라갓다 이날새로 선생님이 된이들의 출신별을보면 매지로 부터의 이입자 경성사범출신어 삼십명, 경성여자사범출신이 삼십팔명, 평양사범이십팔명, 전주사범열명, 함흥사범이 십일명으로되여잇다 (사진은 새훈도사령받는광경)

京城水産市場
一日부터府營

경성수산주식회사에서 경영하든 경성수산시장(京城水産市場)은 경성부직영으로되여 드디어 일일오전여덟시에 경성부윤대리로서 도원(稻原)권업과장과 소림수일(小林秀一)부영신업시장장이 시장에나아가서 시장전부의 전수를 마친다음 오후한시반부터는 시장원을 경성부원으로 임명하엿다 영업대상금은 삼십삼만원으로 결정하엿는데 이로써 경성부직영의 수산시장이일일부터 출현하게된것이다

高麗會舘內에 郵便分室設置

[開城] 개성우편국에서는 일일

섭섭히떠나는 校長先生세분

경기도에서는 일일에 도내각 소학교장의이동을 발표하엿는데 경성부내에서 여동된소학교장은 무학소학(舞鶴小學)교장으로잇든 천엽창치(千葉昌治)씨가 소사(素砂)로 부천군재근(富川郡在勤)의 임건을 하얏케맨드는형편이다

어와가티 빈약한 교사안에서도 글읽는소리가기운차게들려나오다 인도를 청하야원장배요한(裵約翰)씨에게 어쭈엇더니 나는 소화구년에 연이전문학교문과(延專文科)를 마친분으로 신촌주민어학복 심방하는 청년교육자이다 그의 이야기를드르면 어학원에는 현재주간(晝間)생도가 삼백여명야간생도가 백명으로 모두 사백명이 나되는 만흔생도가 공부를하고 잇스며 교원은 네명이고 학급은 삼년급까지 잇서서 삼학년에한하야 학급 이학년에 한학급 일학년에 두학급이라한다 이번신학기부터는 사화년한학급이 생기고 또이바게 입학년에 두학급이 증설될터이여서 작구직학하는 심정을 보이게되엿다 그러나 교실이너무도 협착하야 무엇보다도 큰 걱정거리다 파면 출입보기교실 이런것은 겨우세개밧게업다 그러 배원장과 그동리유지들은

永登浦私立校巡訪記 ❶
進興學院篇
振興舘을敎舍로
四百餘名을收容
二層벽돌집도新築計畫

동포출장소관할안에잇는 공립소학교(원남동학교)는 다만 한곳밖게업다 새로 발전되여가는 공업지대로 해마다 인구가 느러가는 현상이데 올해에는 입학에 참가되지못한 아동어 그금년도 신입학지 대저 만치는 안해지마는 천진원아동에대한 사정한 어린아이들의 순결한 마은 벌써 꿋나서 애태우고 실망하게 한합격 불합격의 허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민망비국이 각처에서연 하기 비참한일이다 입학경출되엿다 경성부영 쟁에서 떠러진아동들을 일부분수용시키고잇는 사립학교도 몃개 잇는터이여서 입학기에 잇는 자녀를둔부형들은 각학교의 현상이 어떠한가하야 저윽이 궁금히 생각하고잇슴(會莫)하다 우선 기자는 어런 각사립학교의현상을 실제로 차저서 소개보기로 하고 그첫거름으로 영등포제사구신촌(新村)에 잇는 진흥학원(進興學院)에 드러노앗다 이신촌은 영등포가 경성부로 편입된뒤로 발전된 부락이다 호수는 천여 인구는 오륙천에 달하야 큰주택지로되여잇다 그러나 학교라고는 이진흥학원한개뿐이다 그건물은 허수룩한빠라 낙"이여서 엉성한 벽틈에서 바람이 새여드러서 겨울에는사람의

어학원은 삼년전에 영등포가경성부로 편입될때에 진흥회관(振興會館)을 이용하야 출발하엿는 되고로 교실은 기대할수잇는려여다 새교사만 건축되면 잘쫌학교로도 적지안흔모양이다 개회대로 지장을어더서 하여가기로되여 정부빗금진행중에잇다 이것은 칠천이백원으로 다 그공비는 신축하기로되엿벽돌이층교사를 이백평의 건평어서 입오평의 대지를팔아서 영등포가 백이십칠원을치에 새로 기지오백재의 기지를 팔아서 영등포가 직성(金直相)씨가 활동하야 현재 씨와 배원장의 활동으로 창립하게된것이다 그리하야 최근 어삼년동안에 영등포가 점점 팽창함에따라 오늘에 어르러서는 큰 사백명의 생도를 수용하는 어원학원으로 성장되것이다 어학원의성취는 영등포의발전과 보조를가티하야 나어가게될러이므로 압날의 희망은 태산갓다 (사진은 진흥학원전경)

(永登浦支局一記者)

富川郡梅花里 勞働夜學修業式

[蘇來] 부천군소래면 매화리(富川郡蘇來面梅花里)로동야학교에서는지난달이십일오전 십일시에 그야학강당에서 제삼회수업식을 거행하엿는바 관내유지다수열석하에 무사히 마치엇다한다 강사는 왓는데 학부형은 물론 일반은 그의성심에 감사함을마지안는다 강사의 씨명과 수업생의 씨명은 다음과갓다

講師 成殊秀、成昌權、成殷植
修業生 李先華、成殊喜、李德文
成萬植、尹鍾雄、成春植

文鶴山에遊園計畫
觀光仁川을宣傳
山頂까지自動車路開拓

[仁川] 인천부에서는 관광인천을 충실히 만들고 인천부의 문학산(文鶴山)을 유원지로 삼고저 그실지조사까지 완료하얏다하며 이달중순에는 부가부원들이 현장에 출장시찰하리라한다 여기에대한 총공비로 산정까지 넓히 철비들의 자동차도로를 개척하고 대유원지의설계로서 「하이킹코-쓰」를 만들려 오다한다 지리되엿든 복지의 평정과 아울러 복구되아 지난이십팔일정도(晋島)중원인 조선우선 회사(朝郵)소속 회령환(會寧丸)이계엽차으로 떠낫다 그러한 그항로는 매월한번이므로 일월부터 철차항로(同)취하게에는 원정도항한 조선우선회사에 는 연액일만원의 보조를 총독부에서 지급하야 해외항로의 보지와 지나방면 항로에 명령한소식을 전하고잇다 여기에 조선우선회사에서는 국책에 순응하야 천진(天津)인천사이에 직통항로도 개획중이라한다

仁川天津間에 直通航路計畫

[仁川] 작년가을 사변이래에 중

十年以上勤續者 七十七名을表彰
府政實施廿五周年記念日에

경성부에서는 일일오전에 부민관에서 부제실시(府制實施)어십오주년 기념축하식을 거행하고 공로자 표창식도 잇섯다는데 표창된사람은 경성부의 공직자 열두명과 부직원 오십사명과 부관계직원 십일명이다 여가운데서 공직자로 십오년이상재직자가 세명 삼년이상 재직자가 아홉명이며 부직원으로는 십오년이상 근속자(勤續者)가 사십사명 이십년이상이 열명이다 또 공립보소학교 훈도로 십오년이상근속자가 다섯명 학교사환으로 이십년이상 근속자가 여섯명이다 그들의 성명은 다음과갓다

▲表彰者氏名

▲學校組合會議員、府協議會員、府會議員 大村百藏 在職十九年 ▲學校組合會議員、府協議會員、府會議員 肥塚正太 同十七年七個月 ▲府協議會員、府會議員 芮宗錫 同十五年 ▲學校組合會議員 同十三年三個月 ▲學校組合會議員、府協議會員、府會議員 藤村忠助 同十三年 ▲府協議會員、學校組合會議員、府會議員 曾我勉 同十二年 ▲府協議員 成松綠 同十二年 ▲府協議會員、府會議員 李升雨 同十一年七個月 ▲學校評議會員、府協議會員、府會議員 金思演 同十一年一個月 ▲學校評議會員、府協議會員、府會議員 青柳相 同十一年一個月 ▲學校評議會員、府協議會員、府會議員 尹宇植 同十一年一個月 ▲學校評議會員、府協議會員、府會議員 金鶴晋 同十一年一個月 ▲學校評議會員、府會議員 梁在昶 同十年十一個月

▲府職員(十五年以上勤續)

▲主事 元義常 勤續二十一年 ▲書記 金龍泰 勤續十九年 ▲書記 李用植 勤續十九年 ▲書記 李武晃 勤續十九年 ▲書記 芝田正晃 勤續十八年 ▲書記 吳壽龍 勤續十八年 ▲書記 柳興熙 勤續十八年 ▲技手 川崎倫一 勤續十八年 ▲書記 金福鎭 勤續十八年 ▲書記 李學榮 勤續十八年 ▲書記 山崎文次郎 勤續十八年 ▲書記 李亨基 勤續十七年 ▲雇員 宋夢龍 勤續十七年 ▲書記 金鍾益 勤續十七年 ▲主事 湯山滿一 勤續十七年 ▲書記 文鎭振 勤續十六年 ▲技手 澤村正 勤續十六年 ▲技手 全東奎 勤續十六年 ▲書記 神門明義 勤續十六年 ▲書記 藤井治郎 勤續十六年 ▲醫記 韓永億 勤續十六年 ▲消掃監督 橫山民治郎 勤續十六年 ▲書記 松永政盛 勤續十六年 ▲書記 大谷圭史 勤續十六年 ▲技手 山本憲一 勤續十六年 ▲書記 堀治太郎 勤續十六年 ▲書記 福井要太郎 勤續十六年 ▲書記 新居隆市 勤續十六年 ▲書記 李漢鎭 勤續十六年 ▲工手 櫻木安照 勤續十六年 ▲工手 竹中右兵衛之助 勤續十六年 ▲書記 豊田玄藩 勤續十五年 ▲書記 坂田寅作 勤續十五年 ▲書記 元殷默 勤續十五年 ▲主事 須崎照雄 勤續十五年 ▲消掃巡視 神原一雄 勤續十五年 ▲書記 平岡消豈 勤續十五年 ▲書記 李東錫 勤續十五年 ▲書記 和田正義 勤續十五年 ▲技手 藤野茂芳 勤續十五年 ▲雇員 尹相稷 勤續十五年 ▲書記 高義根 勤續十五年 ▲小使 白野根岡治 勤續十五年 ▲職工 鄭鎭泰 勤續二十五年 ▲職工 中村仙次 勤續二十五年 ▲職工 李俊植 二十五年 ▲看守 二十四年 ▲同任相煥 二十四年 ▲作業夫 山下一郎 二十四年 ▲同 白順吉 二十四年 ▲定夫 廣富得 二十一年 ▲小使 金泰石 二十年

▲府關係職員(十五年以上勤續)

▲校長正七勳六 相南誠平 勤續二十五年 ▲訓導從七勳七 蒲原識男 勤續二十二年 ▲同 從七勳八 豊田彥一 勤續二十二年 ▲校長從七勳六 町田定治 勤續二十年 ▲同從七勳六 中村多門 勤續二十年 ▲小使 計五人 ▲舟橋校 小使 吳順吉 勤續二十五年 ▲壽松校 小使 印學鉉 勤續二十五年 ▲德壽校 小使 柳致洪 勤續二十五年 ▲貞洞校小使 文成春 勤續二十四年 ▲南大門校小使 三浦留吉 勤續二十一年 ▲龍山尋校小使 梁洲洙 勤續二十年

花嫁學校의
先生은말슴합니다
「나의經驗한바로보면
삿포로비-루를
常備한家庭은
恒常明朗가리
和暢하엿소」

サッポロビール

朝鮮麥酒株式會社

大潮湯、旅館、別館、龍宮
四月二日開業仕候
相變らず御引立奉冀候
貸別莊(長期貸と一日貸)も同樣御利用奉願候
仁川 月尾島遊園

果樹苗木 農産種子
(定價表進呈)
平壤府船橋里
山口農事部
電話四八一番 振替京城一七五二四番

校名改稱
京城商業實踐學校
晝夜授業
校舍新築
(京城中等公民學校改稱)
●本科(中等程度)修業年限二ヶ年 ●專修科(晝夜)四月九日限 四月一日ヨリ實施
▲晝間部第一校舍新築中七月移轉 ▲夜間部第二校舍太平通現校舍ノ儘
太平通大漢門前

價格引上謹告

平素格別하신 愛顧를蒙하와 玆에삼가 謝意를表하옵니다
僉座게서 知悉하시는바와如히 諸物價暴騰에따라 化粧品界의 諸原料材料도 意外의奔騰을 招來하엿사오며 更히四月一日부터 化粧品課稅까지도 實施되와 現狀대로從來의價格을 維持하옴은 도로혀 製品의優良進展을阻害하야 레-도愛用의厚意에 背反됨이잇슬까두려워하온남어지 不得已本日부터最少限度의價格을引上하옵고 益益絶對的優良品을 製産하와 僉座의需要에供하겟사오니 某條록 弊店의熱誠을賢察하시고 倍舊의愛顧가게시옵기 伏願不已하옵니다

昭和十三年四月二日

レート化粧料本舖
株式會社 平尾贊平商店

桃花劇場 電一三三
四月一日부터
◆晝間은映畫
◆夜間은樂劇
料金 大人五〇錢 小人三〇錢均一
花郎樂劇團第一回出演
一、사랑은特急을타고 洪壯無作 喜歌劇 五景
二、禁制無用 朴英作 樂劇 二景
三、내가조와하는것 文藝部篇 스켓치 一景
四、바리에테ー 十六景
當年七才天才兒 金順德孃特別出演
團成社 電光九五

◆デ二十世紀FOX社作 全發聲日本版
렛플의盛臺
監督 리디빈트빗트 主演 샤리ー템플孃
스파이 하의 구
◇日活作品全發聲日本版
脫獄鬼
監督 稻葉蛟兒 主演 松本榮三郎 市川松之助
◇大都映畫 怪物蝙蝠魔
三十一日부터 三日間 晝間一時 夜間七時
永樂町 中央舘 本三〇一四

日支事變ニュース
男の子の本懷
大塚 弘 監督
殺人電波
新富座 京城新富町 電本五六七七番

大東京映畫 大都映畫 有名作品
息子の御用達
主演 阪本三郎 下村歌技
ハリキリボーイ
主演 大谷俊夫
東寶映畫 現代映畫
マドンナ最終列車
日活超特作

強陣·立敎 럭비ー 招聘戰
明三日부터京城球場에서三試合

今씨ー즌의 劈頭를裝飾할 럭비ー의『빅게임』……立敎大學럭비部는 來三日(午後二時半、對全京城)、六日(午後五時 對全普專)十日(午後二時半、對延專)의 三日間 京城運動場에서 舉行하기로되엿다 立敎軍은 일즉이 昭和五年에 東京大學럭비ー界의 覇權을 잡은 歷史를 가젓고 其後에는 이러타할만한 活躍은 업섯스나 지난『씨ー즌』에 强敵慶應을누르고 早大、明大에 버금가는第二位를 占하엿다 實力은 早明兩軍과는懸隔한差異가잇스나朝鮮의 諸君에게는 好敵手일것이다 이 未明爾葉을구러뜨릴보다는 오히려王座를노리는 野心滿滿한빗이 豫想以上의 善戰力을 發揮하는것이다 第一日(三日)에는 全京城軍이對戰할터인데 延專、京醫、京城醫專에서 추려뽑은 混合軍이라『팀웍』은 未知數이나 老練한 選手들인만치 立敎軍의 銳意的攻擊에 어떠한 戰法으로 對持할는지가 興味를끌고잇다 다음으로

第二日(六日)에行하는 全普專軍과의決戰이야말로 近來에드문大接戰을 豫想하고잇는데 普專全員은 旺盛한鬪志와 FW線의快調로 立敎後陣을 擾亂시킬意氣에 불타고잇다 立敎軍은 FW의驍足을 利用한 積極的攻擊에 偉力이잇스니만치 개임에 經驗이 적고 今春드러서첫試合이며 멧 新進도끼여잇는 普專은 필의 均衡을어들을가念慮되나 근래 戰을바롯한 一戰입것이다 練習조차不足하고 陣容이整備되지 못한 普專이 不利하리라는것이『럭비ー팬』의豫測이나 럭비ー精神을體得한 半島男兒의 意氣와勇猛을 다하야 健鬪하기를바란다

第三日(十日)인 對延專戰에는 延專가 依然西部럭비ー界의 重鎭으로서 今『씨ー즌』에는 大岡、福田、三浦等의 三選手를 明大로부터 마저드린만치 陣容을 確固히하고잇스므로 二次의熱戰을거듭한 立敎軍으로서는 苦戰을免치못할것이고 實力에잇서서도 延專軍이 有利할것으로豫想된다

普專의陣容 ▲監督洪性夏 ▲主將金化泳 FW=馬鎭國、崔仁鎬、印康煥、柳志學、徐東秦、崔仁得、宋再泰 HB=金基勳、丁嘉奎 TB=宋斗山、白五鉉、許鉉、韓性澤、李應勳 FB=金化泳、安台慶、朴商萬 鄭仁山、卓龜顯、尹成欽、梁泰根、韓龍雲、盧行洙、印鴻植、金龍元

全朝鮮武道
卅日부터兩日間

大日本武德會朝鮮本部主催의武德祭와 및全朝鮮武道大會는 四月三十日 五月一日의 兩日 警察官講習所道場에서 擧行하기로되엿다
▲四月三十日 午前九時 武德祭兼 柔劍道個人試合
▲五月一日 柔劍道各道對抗
그리고 弓道는三十日에 總督府構內道場에서 三十日試合을行하고 一日은昇段審査를 行하려이라한다

올림피아 發掘

【伯林二十八日發同盟】伯林올림픽大會時에『히틀러ー』總統이宣言한데따라서獨逸은昨年秋期에 希臘의古代올림피아發掘의 準備를整備한後 昨冬부터 多數의 機關車와 四百의馬車 八百名의 勞働者를 使役하야 發掘에 着手한바 來一九四四年에는 이發掘事業을마칠豫定이나 그동안 發掘된 品床期遺物로 因하야 올림피아附近에는 數多의 遺蹟이 露出하야『스타디욤』近邊으로부터는 競技武器『부론스』像、兜、甲冑等과第五世紀로부터 第八世紀까지의여러가지武器가 發見되엿다는데요사이는 裝飾品이 나오기始作한다고한다

陸上候補追加

日本陸上競技聯盟에서는 來五日부터 올림픽 第一候補合宿練習會를 明治神宮外苑에서 열기로 되엿는데 從來 發表한選手外에 마라손의 孫基禎君과 鳥食(棒高跳)鹽瀨、齊藤、小林、鳳間(以上競步)白取(四百米)等의七名을 追加하엿다한다

中央體硏
新入部員增募

府內花洞町四二番地 中央體育研究所에서는 新學期를 마지하야 新入部員을 增募할터이라는바 入所手續은 每日午後七時半부터 接受한다고한다(但日曜日은 接受치아니함) 從前대로 入所費三圓 每月所費一圓인바 仔細한것은 同研究所로 問議하기를 바라다고한다

希臘→東京間
〃炬火〃릴레ー計畫

『카이로』의IOC(國際올림픽委員會)總會로부터 東京大會에서도『聖火릴레ー』를 遂行하야주기 바라다는 詰文이잇섯다 그런데 이聖火릴레ー가 果然 伯林올림픽大會와가티 希臘의 오림피아의 遺蹟에서 東京까지 聖火를運搬하는것을 必須條件으로 한것인지 그것은 日本代表國의 解釋報告를기다려서 研究할것이나 組織委員會事務局에서는 一端希臘으로부터 聖火를運搬한다는것으로서 內面的으로 여러가지 計畫을세우고잇다 이것은모두 假想的의것에 지내지못하나 其中에 가장興味잇는計畫은 다음과가튼大亞細亞橫斷의『聖火릴레ー』코ー스가잇다

그것은 먼저希臘으로부터에ー게』海를 건너 土耳其에到着한後다시『시리아』『이락』波斯를通過하야『아프가니스탄』에드러가 印度의北境『히마라야』山脈을經由하야 敢然新疆을거처서 內蒙古를 通過코北京에 나와 이로부터 朝鮮을 縱斷하야 日本內地에로 발을 옴기어 東京까지라는 約一萬五千粁의『코ー스』를 自動車와飛行機를 利用할것으로利用하야 不滅의炬火릴레ー를 行하고저하는計劃이다

『波斯』、『아프카니스탄』、新疆等의路程은 이미『차보레ー』自動車會社의 무사도突破에도 使用한일도잇서서 決斷코實行不可能한것이아니며 國策的으로보아서도 이路程을適當한다는것은 意義가잇다

이外의案으로서는 希臘으로부터 地中海 利加大陸으로 건너서 印度洋을橫斷하야 滿洲로가서 東印度諸島를 經由하야 比律賓、臺灣으로부터 日本內地로가는『코ー스』도생각하고잇스며 平凡한것으로서는 歐洲로부터 米大陸에 太平洋을 배(船)로건너서 日本으로 向하는案도잇스나 最後에 希臘에서 點火한 聖火를電化하야 日本의適當한場所에서『스위치』를너허서 希臘의불(火)을옴기는 가장興味잇는 科學的聖火릴레ー의方法도 考慮中이다

어째든 聖火릴레ー의 實施는 組織委員會에잇서서는 큰問題로서 이것이 어떠케具體化될는지가 注目된다

時日 四月十五、十六、十七의三日間
場所 京城運動場

全朝鮮都市對抗蹴球大會

申請 四月五日까지出場都市代表팀의멤버ー(監督一人、主將及選手十一名、候補三名)를明記하야 本社運動部로申請할것

主催 朝鮮日報社·**後援** 朝鮮蹴球協會

구경단이는데도 稅金을내게된다
입장요금얼마부터밧게되며 세금은어떠케내여야하나?

四月一日부터 구경단니는데세금을 물게되엿습니다 어것은이번 지나사변(支那事變) 때문에 새로히제정된 특별세령(特別稅令)이라는것입니다 그러면 어떠구경에 세금을물게되고 세금을물게되면 얼마나 물게되는가

입장세에는 제일종제이종(第一種第二種)두가지가잇습니다

○제일종입장세(第一種入場稅)

一、연극、영화、연예、씨름、야구、권투、축구등 기타운동경기중에서 입장료금을밧고 일반관중에게 구경시키는 극장、영화관、운동장
二、경마장
三、박람회장、전람회장、유원지(遊園地) 또는 유람소

등어런곳에 입장료내시고 입장하는이에게서 세금을밧습니다

○제이종입장세(第二種入場稅)

一、무도장(舞蹈場)마작구락부 동구장(麻雀、撞球場)
二、골푸장 스케ー트장

등 장소의설비를 이용하는경우에 어용하는사람에게서 세금을밧습니다

입장세는 누가내는가

그러면 입장세는 누가내는것인가? 우에이약이한 제일종에 해당하는장소에 입장한사람 또 제이종의장소설비를 이용하는사람 이 입장세를 내게되는것입니다 즉 구경간사람이세금을내게되는것입니다

입장세는 얼마나내는가?

입장세는 입장요금의 百分의五 즉 五分를 내게됩니다 그러니까 一원에는 五전 五十전에는 二전오리를 내는폭이됩니다

입장세 안내는경우

제일종의 입장료가 三十九전미만인때는 입장세가 업습니다 그러니까 운동경기나 연극 영화를 구경가서 요금이 三十九전이하가 되는때는 세금이 업서집니다 그러나 여것은 제일종인 경우에만 한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이종이경우 마작하러갓다던지 빌랴ー드치러갓슬때는 요금다소를 불구하고 세금을 내게되는것입니다

그러나 출정군인 유족이원호미라던지 자선사업 유해군인위안(海軍慰恤)의경우에는 세금은 면제됩니다

◇특별입장세

학생 생도들이 행 하는운동경기라거나 직업적인 운동경기가 아닌때에 한해서는 관람료를바들때면 세금을 내게됩니다

대개 이상으로써 일입이거니와 삼십구전이상의 구경을 가실때면 그돈에해당한 요금을 내실생각을 하서야합니다 그러나 시내『명치좌、황금좌、약초극장、낭화관』(明治座、黃金座、若草劇場、浪花館)에서는 학생할인권을 업새는대신 입장료금 사십팔전에 세금이전을 합해 오십전을 밧기로되엿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오십전주시고 구경다니시는분에게는 별관계가업시 되엿습니다

로맨스의꼿피는 봄의헐리우ー드

사랑과영화의 도시헐리우ー드는 봄이되면 아름다운 로맨스의 꼿들이찬란하게되여서 번창하기짝이 업스나 최근의 뉴ー스를 소개하면 은마의 요렴한여왕 그레다가르보와 스토코우스키의사이가 이상스럽게가까워지며진행되고잇다 로인 벼아리까지이본엔 여대리의 내블스에서 결혼식을거행하기로되엿스니 소문은 소문을나코 사랑은사랑을나허서 그소동이여간아니데 당자인 가르보는『세상에서는 이러니저러니 하야도 내가 결혼을 한다는것은 절대로잇슬수업는일입니다』하고 취소하얏다。

다음으로는 빙의여왕소니아헤니 한시절인끼를 끌던미남자타이론파워를 강적로레타영으로 부터 빼서왓다는소문이나더니 어느사이엔가젬스스튜워ー드와 가까워젓다 미남파ー워는영을멀리하고 자ー네트게이너와 상당히강렬한연애에빠섯다고한다。

上映禁止當한 『偉大한幻影』
反戰思想을理由로

불란서 R·A·C영화회사에서 제작하야 세계적으로 알려저잇는『偉大한幻影』어 얼마전부터 동경(東京)에서 그상영에 대한 여러가지소문이 엿서왓는바 이번 내무성경보국(內務省警保局)에서는 육군성 외무성과 협의한후 신중히 종합검열을 한결과 지난 이십팔일 이영화는반전사상(反戰思想)을 고취할염려가잇다는 어유로 상영을금지하기로 결정되엿다

이번 이영화를 금지하게된이유중에는 어영화가 독일『나치스』정부에서 역시 상영금지한데 대하야 가튼 동맹국인 일본으로서도 이에 동일한태도를 취한것이라고한다

이영화의내용은 독일군대의군기(軍紀)가 문단한것가리 비방한것으로 독일에서 주일독일대사(駐日獨逸大使)를 통하야 이러의미의 통고도잇섯스므로 이번 단연히 상영금지를 하게된것이다한다

이 영화는 작년 이태리에서 개최된『국제영화콩쿨』에서 가장우수한영화로 추천되야『못솔리니』수상상(賞)을바든 명영화다

이영화는『地下廚』을 감독한『장·르노아ー르』의 감독작품으로『장·갸빵』『스트로하임』『피에ー르·프레네』『뒤ー타·파ー르』등의 주연으로 이영화에는 불란서비행사가 독일의 포로가되여 취체당하고 취급되는것과 이포로중 한사람이 탈주하는장면등이나온다

그런데 독일이 상연금지한이유는 포로장교의 인도주의 박애주의를 너머서 군기를 문란케하엿다는데잇다

이태리에서도 수상상까지바든 어작품이 방공협정국(防共協定國)의 우의를 위하야 상영을 금지하게되리라고 전한다 이리하야『국제영화콩쿨상』을 바든『偉大한幻影』은 은막에 비출 기회를 영영일허바리고마럿다

〃無情〃로케ー숀
隨行撮影會 朝映에서主催

時日 四月十日(日曜日)午前十一時
場所 昌慶苑 明政殿前集合
作品 四折印畫紙一人 三點以內
選賞 一、二、三等(優勝컵)
選外佳作에는紀念品進星
모델은 進行場面外、朝映俳優、韓錫珍、崔英一、金信哉(女) 李白水、崔南鎬、李錫熙、金一海
會費 無料
會員 五十名限
申込 四月八日까지
(會則은當日配付)

〃추춤는不夜城〃 로社메트作品로버ー트벤취리主催 四月四日부터 市內明治座에서上映

창고에오곡이차고 廿八에貴人을맛나

조선의『시몬느·시몽』ー 우슴속에 애수(哀愁)를띄엇스나 어딘지 일으봄의다사로움과가튼생기(生氣)가 타렴잇게 그의전신을 흐르고잇다 푸른보름에비최인 수양버들가지와가티 하느적거릴때마다 남모르게 봄을기달리는꾀꼬리의우름소리가 거리거리로 흘너올듯하다

우리 예원의『히로인』남궁선(南宮仙)양이원어 그의비극적인운명(悲劇的運命)에서 버서나오는 명연기로서 널리세상의인기를 집중하고잇거니와 더욱 남양이『설문하어멜빠르히』나 춘희(椿姬)의 녀주인공으로 무대에나타낫슬때 관중은 그의 가비엽고능숙한 몸가짐에 도취햇다

그러나 우명의신은 영애게 그무슨 신비로운 약속을 해주엇든가? 어제 다사로운보름 四月어되엿스니『에ー프릴·풀』(四月의바보)로 꿈여댈수 잇기도 하련만 판상래가 심홍태선생(觀相大家沈洪澤先生)은 아직도 이런 서양풍속을 모르는지라 오늘이 四月초하로인것도몰으고 솔직하게양의一생에대한 명판단을 나리는것이다

○

눈섭이만코 거슬려 치척의뎍을 보지못햇슬것이요귀가복스럽지못하야 부모의애정을 만낫지못햇슬것이로다 그러컨만 귀가 업골보다하니 일홍이 세상에 떨칠진저 기자 여예서 八년전 양의얼골을 생각하매 지금보다는희지못햇던가십다 눈비치 정기롭띄여 흑백(黑白)이 분명하고 흰자위겸은자위보다만으니 심지무던히 정직하야 남에겐 후하고 가정에선착하리라 천정이 빈드르르 질생겻것다 폴리어시소년(二十전후란말이다』에 일홍을날녀구나 게다가이마박이 흑이업서 꼿다운일홍을 엇슬것이로다 이리하야 양의인기가 그의타고난 八자로더부러빗나지안흘수업슬것이다

○

재궁(財宮)、자궁(子宮)은 어떠한고? 입이 텀탁하게생겻스니 일생 호의호식할것이요 코가 절통(節筒)가트니 오곡(五穀)이 창고로 가득차리라 인중이 쪼개진참대와가티 위가좁고 아래가넓으니 두아들을두어 한평생 효도를 바들것이다。금옥(金玉)이 만당(滿堂)하니 ·오복이 구전타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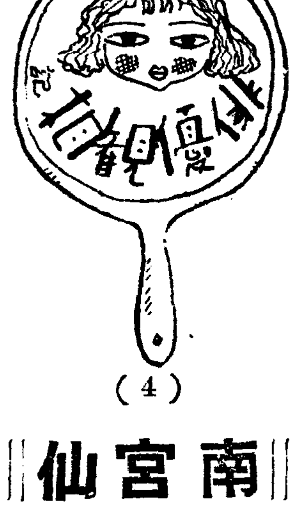
부궁(夫宮)을 살펴볼까? 머리가걱고 코가나지 남의사랑을밧되 후처될상이라 어진남편을엇되 정이 잇고업고할 염녀가잇다 흑이잇다면 붕이 좋아하겟이라고 할까?

○

二十五、二十八 이양년에 귀인(貴人)이 힘을도아 반드시 조흔 기회가잇스리니 경사와 길한일이 한가지로 이르리라 二十九에 땅사고 집작만하야 三十三、四와 四十四、五、六、七、八년엔 대창(大昌)할운이로다 아쉬라 四十一、二와 五十一에 소액(小厄)이잇스리나 과히 걱정할바아니로다

○

천생에 타고난조흔운과 조흔재조로써 더한층 새로운 노력으로 이땅의 연극을위하야 빗나는 력서를 만들지어다



(4)

南宮仙

二日(土曜)

◇午前一〇時三〇分 家庭메모
◇午後〇時五分 (東) 土曜코ー서ー트(第七回) 管絃=一、하ー프三重奏 가、마리아에捧星 에ー른슈레ー겔作曲 나、歌劇『호프만의이야기』船歌 오펜박크作曲 二、하ー프獨奏 가、波濤의作亂 포세作曲 나、물레 앗세르만作曲 三、하ー프四重奏 가、河邊歌 成田爲三作曲 나、마음과꼿 드바니作曲 渡邊하ー프樂團 바이올린 韓岸徹 플ー트 山口雅章 첼로 大塚楠男
◇同一時一五分 衛生講演『트라홈의豫防』 魚 淵
◇同三時 入學試驗合格者發表ー習成專門
◇同四時 入學試驗合格者發表ー延禧專門
◇同六時 이야기『안데르센과그의童話』 尹石重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曲
◇同六時三〇分 (平) 講演『新學年을마즈며』 光成高普校長 池鎔殷
◇同七時三〇分 講演『第十八回記念植樹日戰時體制下에서마즈며』京畿道産業部長 尹泰彬
◇同八時 野談『因果』 慶秋岡
◇同八時三〇分 音律 靈山會相 中 잔靈山 가락도드리 三弦 下弦 念佛 玄琴 李彦植 洋琴 李承煥 奚琴 金德鎭 短簫 崔壽成 細笛 趙載琓 杖鼓 池龍九 白牧丹 鄭錦紅

第一放送

◇午前一〇時五五分 (大)野球
◇午後〇時五分 (東)土曜코ー서ー트
◇同六時 (大)이야기
◇同六時二五分 (城)講演
◇同七時三〇分 (東)歌謠
◇同七時四〇分 (東)講演
◇同八時 (東)落語
◇同八時三〇分 (大)童謠
◇同八時五〇分 (東)家庭코ー트

三日日曜

◇午前七時二〇分 라디오體操
◇同一〇時 陸軍特別志願兵制度實施並敎育令改正奉告祭實況(國語、朝鮮語)ー朝鮮神宮大前으로부터中繼ー
◇正午(東) 時報 (東) 맨돌린合奏
◇同一時 新作이야기 李懸興
◇同一時三〇分 라디오紀行 韓一松
◇同二時三〇分 럭비ー試合實況(國語)ー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繼ー立敎大學對全京城
◇同六時 적은音樂會 一、빠이올린獨奏 1、메누엣트 金載勳作曲 2、코리안라맨드 洪蘭坡作曲 3、메누엣트 베ー토벤作曲 李桂成 피아노伴奏 崔聖斗 二、童謠 1、비행기 2、나비3、토까님(桂)4、이동리저동리(桂) 5모래城(秦) 6、꼬부랑할머니(秦)7、꾀꼬리의꿈 8、숨박국질 桂恩蓮 秦貞姬 伴奏 DK管絃團 指揮 洪蘭坡
六、二五講演『敎育令改正과志願兵制度에對하야』總督府社會敎育課長 金大羽
同七時三〇分(東)吹奏樂 一、組曲(繪畫的風景)저녁行進 外四曲 아스나作曲 陸軍東山學校軍樂隊 指揮樂長 山口常光
◇同八時 古詩朗誦 李嘉寶
◇同八時三〇分 雅樂ー李王職雅樂部로부터中繼 一、凝安之曲(祭樂) 二、瑞日和之曲(合樂) 三、咸寧之曲(宴樂) 李王職雅樂部員 指揮雅樂師長 咸和鎭
◇同九時 流行歌와民謠 一、流行歌(李蘭) 가、獨宿空房 朴是春作曲 나、珊瑚빗하소연 同曲 나、눈물의色眼 古賀政男作曲 二、民謠(李銀) 가、요핑게조핑게 金松錫作曲 나、미운情고운情 同 三、流行歌(高福) 가、馬車의방울소리 樂浪人作曲 李蘭影 李銀波 高福壽 伴奏 OK管絃團

本社獨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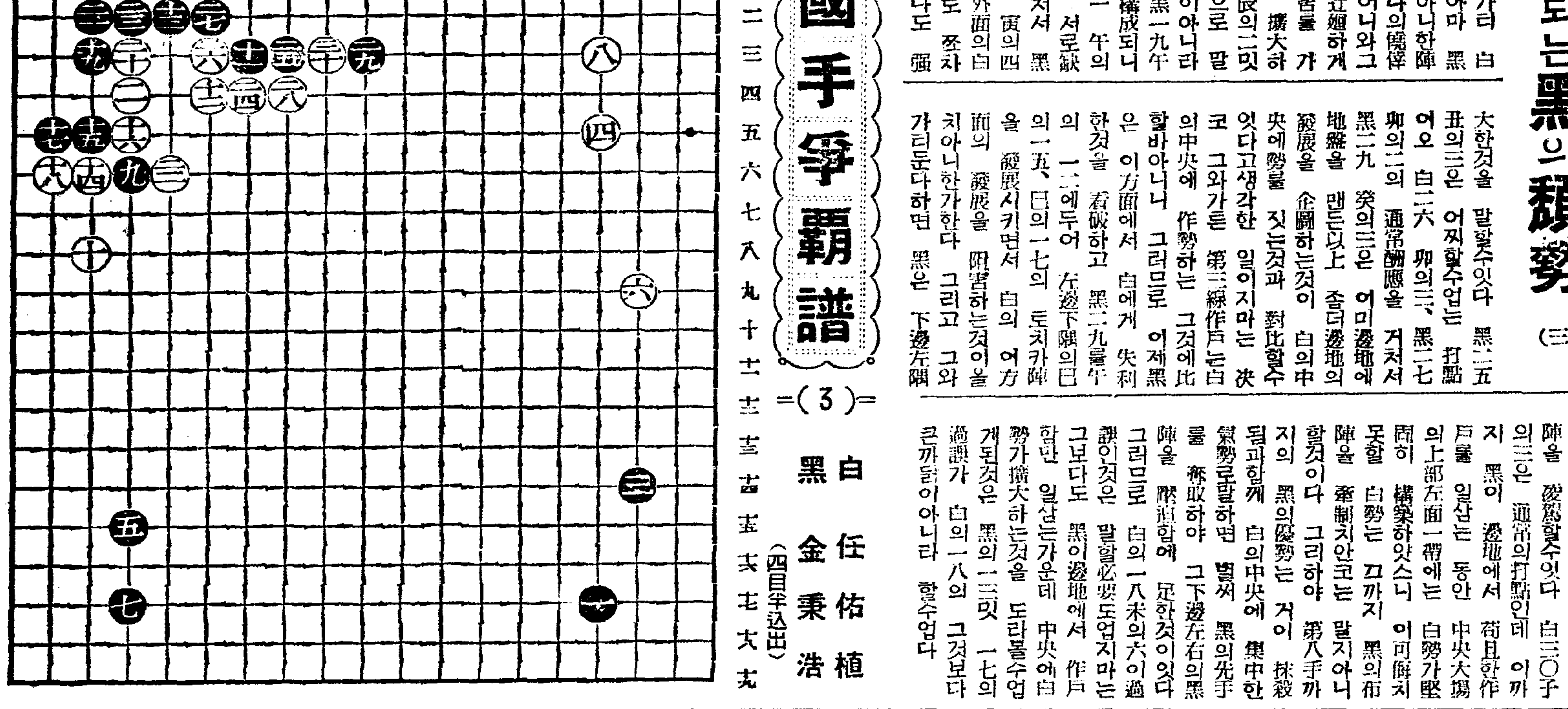
國手爭覇譜 =(3)=

白 任佑植
黑 金秉浩
(四目半込出)

連二次失手로 擴大되는黑의頹勢 (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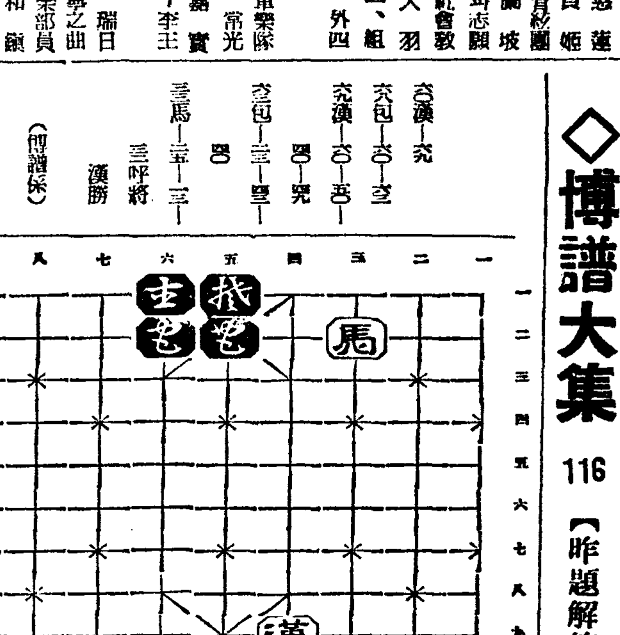
前回에서 말한바와가티 白一八의 過誤로 말미아마 黑어 右邊上隅에 적지아니한陣營을 構築한것은 하나의偶倖으로 볼수잇는 일이어니와그러나 黑은邊地로만 迂廻하게되고 白은 中央의要害를 가지게되야 漸次白勢가 擴大하게된것은 黑의一三 辰의二잇 一七 未의五의 誤着으로 말미암은 必然한 責罰이아니라할수업다 그리하야 黑一九午의三의 邊地基礎가 構成되니 白二〇 巳의三、黑二一 午의二、白二二 辰의六의 서로缺할수업는 酬應을 거처서 黑二三 巳의二、白二四 寅의四의結構가 實現되니 外面의白勢는 劉邦을 漢中으로 쫏차보낸 項羽의 그것보다도 强大한것을 말할수잇다 黑二五 丑의三은 어찌할수업는 打點이오 白二六 卯의三、黑二七 卯의二의 通常酬應을 거처서 黑二九 癸의三은 어미邊地에 地盤을 맨든以上 좀더邊地의 發展을 企圖하는것이 白의中央에勢를 짓는것과 對比할수엇다고생각한 일이지마는 決코 그와가튼 第三線作戶는白의中央에 作勢하는 그것에比할바아니니 그러므로 어제黑은 이方面에서 白에게 失利한것을 着破하고 黑二九를午의 一二에두어 左邊下隅의巳의一五、巳의一七의 토치카陣을 發展시키면서 白의 어方面의 發展을 阻害하는것이올치아니한가한다 그리고 그와가티둔다하면 黑은 下邊左隅멧 有隅에토치카의 地盤이잇고 또左邊上隅에 黑地가 構成되얏스니 그로써 넉넉히中央의白勢와 右邊上隅一帶의白陣을 叛蹈할수잇다 白三〇子의三은 通常의打點인데 이까지 黑이 邊地에서 苟且한作戶를 일삼는 동안 中央大場의上部左面一帶에는 白勢가堅固히 構築하얏스니 이미解치못할 白勢는 끄까지 黑의布陣을 牽制치안코는 말지아니할것이다 그리하야 第八手까지의 黑의優勢는 거이 抹殺되고말고 白의中央에 集中한氣勢로말하면 벌써 黑의先手를 奪取하야 그下邊左右의黑陣을 壓迫함에 足한것이잇다 그러므로 白의一八未의六이過誤인것은 말할必要도업지마는 그보다도 黑이邊地에서 作戶함만 일삼는가운데 中央에白勢가擴大하는것을 도라볼수업게된것은 黑의一三잇 一七의過誤가 白의一八의 그것보다 큰까닭이아니라 할수업다

●一九 午의三
○二〇 巳의三
●二一 午의二
○二二 辰의六
●二三 巳의二
○二四 寅의四
●二五 丑의三
○二六 卯의三
●二七 卯의二
○二八 丑의四
●二九 癸의三
○三〇 子의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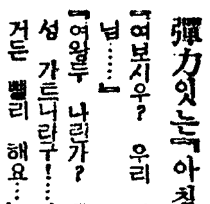
◇博譜大集 116 【昨題解答】

[illegible]
三呼將
漢勝
(博譜保)



長篇小說

濁流
蔡萬植作
鄭玄雄畫
【166】



彈力잇는아침(5)

『여보시우? 우리 여왕 나리님……』
『여왕두 나린가? 무식한 백성 가트니라구!…。할밥 잇거든 빨리 해요…』
『그리지 말구、내가 처제 구두 한켜레 못해술 사람인가?…。어떠가 굴러루 갈데니가치가서 썩 멋지게 한켜레 마처 신어요』
『걱정 말래두!…。내일 내가 어련히 알어서 하까뵈?』
『하잇다! 팬헌 고집 쓰지말구…。내 이따가 여섯시 파할때쯤 해서 가께、잉?』
『어데를 와?…。괘니 와다만 보아라、미친놈이라구 순사를 안불러대나……』
『호호、거 재미 잇지! 구두 사준다구 순사 불러대구?…그래 어디 모처럼 유치장어나 하룻밤 구경하까?』
『괘니 비밥두 얇구서?…。와서 얼진거리구 말이나 못치구 헤 보아? 담바……』
계봉이는 쏘아주고서 대문깐으로 나가바린다。초봉이는 울고 떼쓰는 송희도 달랠 생각을 잇고서 동이 하는양을 우둑허니 보고잇다가 한숨을 쉬고 돌아안는다。
형보는 그러케 처음부터 끗까지 배포잇시 쭈루룩 하는데 계봉이는 그 떡심을 바워내다못해 꼬장꼬장한 만성미를 부리고 마는것이 그게 장차에 황은 볼 장본이지 서른것이다。상상한놈과 늑진거리는 두놈이 아수 자꾸 부디치면 위선 보매는 강강한놈이 익여내는것갓지만 그러는 동안에 속으로 끌어、필경 끗장에 가서는 작신 부지러지고、그래서 늑진거리는 놈한테 잡치고 만다。
초봉이는 그게 걱정이다。그러니 이왕 그럴테거든 계봉이도 그 발띡하는 성미를 부려지를 말고서 차라리、마주 꼿꼿지 떡심잇시 바워내기나 햇스면 십다。
구두를 사수마 하거던、오냐 사다구、팔도라도 이러케 바더넹기고、백화점으로 차저간다거던、오냐 오너라、우리 동무델한테 구경꺼리 한턱 쓰는셈이니 기대리께 제발 좀 오너라 이러케 바더넹기고 햇스면、그당장 거르로 보기에는 위태로워 조심스럽기는 하겟지만 그게 오히려 뒤가 드은든 할것갓튼것이다。
계봉이가 나가는 뒤태를 입을 헤버리고 안저 멀거니 바라보든 형보는 어옥고 끙ー하면서 고의춤을 옹켜쥐고 안시방으로 드러온다
『히히、히…。참 조오케 생것서、히히』
초봉이는 그게 무슨 소린지 아러채기는 햇서도 정것 모른는체 더 지꺼리지 못하게 하느라고 식모를 불러드린다。
그러나 형보는 식모가 드러와서 밥자리를 훔치고 밥상을 들어내가기가 바쁘게、떡허 초봉이 아페 주저안저
『히히 히…』
하고 그우슴을 그대루 웃는다
초봉이는 잔뜩 눈을 흘긴다
『미첫나! 이건 왜 이모양새야? 퍽 보아줄수 업네!』
『히히、조오란 말이야! 응? 아ー주 아주…』
『무엇이 조타구 시방 어지랍어야?』
『꽤옥 잘 익은 수밀도도!그러치?』
『비꺼나!보기 실흐게…』
『비어 물면 물이 주울줄 쏘다질것 갓구……』
형보는 싯 드러마시다가 침을 한입벙이 지르를 흘린다。그놈을 손등으로 쓱 씻는게 더그럴듯하다。
『호협신게!아이구 호호…역아홍살…마침 졸때지!』
『아 네가 저엉 어러기나?』
『헤엣다!무얼 다…옛날에 요순님군 가튼 성현두 아황여영 두 아우형제를 데리구살엇다는데…。히히』
사납게 쏘아보고잇든 초봉이는 어룰 악물면서 발끈 주먹을 쥐어 형보의 앙가슴을 미어지라고 내질른다。
『아이쿠!』
형보는 뒤로 나가 동그라저 가슴을 우디다가 초봉이가 다시 달려들려고 별르는 눈치를 보고 대굴대굴 윗목으로 굴러달어가서 오롬 어리나 안는다
『헤헤헤헤』
형보는 그만것에는 꿈을 내지 안는다。
초봉이는 무엇 집어던질것을 찻노라고 휘휘 둘러본다
『다시두 그따우 소리를 할테야?』
『혜혜혜혜 언그래 안그래』
『아니 안그러께…。히히』
『다시두 그따우소리를 햇다보아라!… 죽여 바릴테니…』
무심코 초봉이는 어말을 씌어 뱃다가 제말에 제가 흠해서 눈을 번쩍 뜬다。
죽일 생각이 나서 죽인다고 한게 아닌데 흐히 용끄데 나오는 소리로 죽인다고 해노코 드르니까 아닌게 아니라 귀에 솔깃어 댕기여 비로소 죽여바렷스면 서픈 의사가 소사나든것이다